碩士學位 請求論文

李範宣 小說의 葛藤 硏究

指導敎授 金 永 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宋 昌 善

1994年 月 日

李範宣 小說의 葛藤 研究

指導敎授 金 永 和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提出者 宋 昌 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宋昌善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安 成 洙 印

審 査 委 員 文 聖 淵 印

審 査 委 員 [illegible] 印

〈抄　錄〉

李範宣 小說의 葛藤 硏究

宋　昌　善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指導敎授　金　永　和

이범선은 1955년 35세때 『현대문학』에 「암표」, 「일요일」을 통해 김동리의 추천으로 등단했다. 그 후, 그는 한국적 인정과 인간성 옹호에 바탕을 두고 전쟁 前後의 체험을 서정적이며 비판적 관점에서 묘사했다. 이 점에서 그는 전후 신세대 作家群 중에서도 성실하고 전통적인 경향의 작가로 평가되었다.

이 논문은 그의 단편소설을 망라하여 갈등 양상과 그 기능, 또는 의도를 살피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연구를 위하여 갈등 양상을 '분단과 전란의 갈등', '사회적 갈등', '내면적 갈등' 등으로 분류하였다.

1. '분단과 전란의 갈등'에서는, 역사적 수난에 처한 인간의 본성은 회의하고 갈등한다고 하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인정을 회복하고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거기에서 희생은 화해를 위한 동기를 증폭시키고, 기독교적 사랑, 또는 인정주의적 사랑으로써 화해에 이르렀다.

2. '사회적 갈등'에서는,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위해 발버둥치는 서민들의 비극적 상황을 제시하고, 전통적 인정 위에서 그 문제 해결을 소망하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려 하였다. 여기서 작가는 현실 대응 자세로 「사망보류」 계열의 '대립', 「박사님」 계열의 '풍자', 「몸 전체로」의 '동조', 「냉혈동물」 계열의 '극복'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형적 종교와 경직된 윤리,제도는 화해로운 삶을 위한 선의의 명분을 잃고서 실재의 불행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갈등의 요인은 전후의 가난과 인정 상실, 생명 경시이고, 그 갈등을 극복할 힘은 인정과 신뢰의 회복 그리고 사랑에 있다고 하였다.

3. '내면적 갈등'에서는, 肉的인 사랑 속에 번민하며 靈的인 사랑을 추구

하는 모습을 그려나간다. 그리고 타락한 성애를 부정하고 진정한 사랑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이범선 단편소설의 작품 세계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원회귀에의 향수'로서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에서의 인간의 변모를 조명하였고, 외형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묘사하였다. 둘째, '양심의 고발과 분노'로서 부도덕과 몰염치, 부조리와 기만을 고발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양심과 도의의 편에 있는 약자는 현실에 부딪혀 꿈을 못 이루고 희생당하고, 자기환멸과 울분을 느낀다. 셋째, 사랑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사랑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상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이 소중하다고 하였으며, 타락한 성애를 배제하고, 윤리의식을 촉구한다.

공통적으로 그의 소설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고난당할 합당한 이유없이 운명적으로 수난을 겪고 화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약』의 '속죄양' 모티프와 유사하다. 요컨대 작가는 갈등을 통하여 이런 아픔을 알리고, 치유를 위한 능력과 성의를 가져야 한다고 모두에게 촉구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는 평범한 서민들이나 소외자들에게 애정을 품고, 사랑과 자아와 평화를 추구한 인도주의적 사실주의 작가로 평할 수 있다. 그리고 전후의 현실을 비판하고 인간성 옹호를 촉구한 전후 신세대 작가군에 속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 1
2. 연구사 검토와 접근 방법 ---------- 2

Ⅱ. 갈등의 이론적 고찰
1. 소설의 갈등 ---------- 7
2. 갈등의 시대적 의미 ---------- 9
3. 갈등의 유형 ---------- 11

Ⅲ. 갈등의 동기와 양상
1. 분단과 전란의 갈등 ---------- 14
1) 실향과 귀향 의지 ---------- 14
2) 전쟁과 생존 의지 ---------- 19
2. 사회적 갈등 ---------- 23
1) 이기주의와 인정주의 ---------- 23
2) 명분과 실재 ---------- 37
3. 내면적 갈등 ---------- 42
1) 肉的 사랑과 靈的 사랑 ---------- 42
2) 性愛와 純愛 ---------- 46

Ⅳ. 갈등 구조의 형상화 방법 ---------- 48
1. 낙원회귀에의 향수 ---------- 50
2. 양심의 고발과 분노 ---------- 55
3. 희생과 구원의 변증법 ---------- 58

Ⅴ. 결론 ---------- 64

작품연보 ---------- 68
참고문헌 ---------- 70
Summary ---------- 7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서 론

1. 문제 제기

이범선은 전통적인 생활의식을 전통적인 소설미학으로 형상화하고 확대시킴으로써 '戰前小說과 戰後小說의 맥락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1]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적 성과는 고발문학의 기념비적 정점[2]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작품 세계가 인정과 서민적 양심에 근거하여 현실을 비판하며, 소박하고 향토적인 언어로써 서민 생활의 체험을 담담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범선 작품들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1970년대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그는 작품 속에서 1950년 직후까지의 기간은 탄압으로 인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었고, 월남 또는 전쟁으로 평화와 고향을 함께 잃은 낙원 상실의 시대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화해와 신뢰의 부재 시대라고 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전쟁, 대립, 모순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갈등을 隨伴할 것이다. 그리고 소설의 갈등은 전개를 통하여 안정과 화해를 추구하거나, 是正을 위한 비판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미적 요소로서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설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충돌—대립—갈등—긴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룩하는 구조적인 力動性이 있는 것"[3]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설은 감동을 통해 인간의 진실을 추구하는데, 갈등은 감동을 자아내는 필수 요소이다. 그런데 이범선 소설에 대한 갈등 연구는 단편적이고 副次的으로 이루어져 미흡한 점이 있었

1) 김인선(1991), "이범선 단편소설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참조. 고은혜(1992), "이범선 소설 연구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교육대학원 참조.
2) 백승철(1976), "고발문학의 기념비적 정점", 『오발탄』, 삼중당.
3) 유학영(1987), "1950년대 한국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p. 61.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범선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그 기능을 분석해 내는 데 목표를 둔다.

그리고 갈등은 인물이 다른 인물을 포함하는 상황과 부대끼는 자리에 존재하므로, 갈등 양상에 있어서 인물은 중요한 變因이다. 이 인물들이 제시하는 진실한 인간상과 태도는 갈등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갈등 연구는 작품 이해에 적잡이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물 유형과 갈등 양상이 상호 연관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들이 주제로 수렴되는 과정을 고찰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그의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표작을 중심으로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결과는 그의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부분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작중 인물들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는 평가'[4] 도 대개는 부분적인 관찰의 결과이므로, 그의 작품 전반의 인물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이범선의 작품은 '문제 제기일 뿐'[5],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는 해결 방안이 제도나 사회의 변화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과 사랑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리고 결말이 비극인 경우에도 전쟁이나 부조리한 사회의 희생양들로써 평화와 화해를 촉구했다는 점을 간과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연구사 검토와 접근 방법

이범선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분단과 6.25에 대한 그의 역사의식을 살피거나, 사회 비판 및 심리적인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 소설미학적인 연구로는 소설의 대립 구조와 상징, 문체 등을 분석한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세태 고발과 서정의 작품들로 구분해서 논의했으며, 주로 가족과 개인을 통하여 한계상황과 소외의식, 피해의식을 바라

4) 황헌식(1980), "집단과 소극적 개인 -이범선론-", 『현대문학』 통권302호, pp.290-298 참조.

5) 이희훈(1989), "이범선 소설 연구-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보았다.

황헌식은, 가난하고 선량한 소시민들에게 있어 양심의 갈등은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에 부적응하게 된다고 하고, 情, 순수한 본성, 사랑 등으로 연결된 사회를 이상으로 보았다.[6] 권유는, 작품 세계를 역사적 체험 수용과 소외된 사람들의 피해의식으로 나누었고,[7] 박수윤은, 철저한 도전이나 대결의 자세, 또는 설득력의 부족을 지적했다.[8] 김상홍은, 기독교의 영향과,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한 작품과, 戰後의 경제적, 정신적 빈궁과 비정한 체험 등이 형상화된 작품으로 나누고, 조직 사회와 타락한 인간에 의해 성실한 인간이 소외되는 과정을 추적했다.[9] 차원현은, 분단 현실을 신화적 세계로 換置하여 현실의 갈등을 용해하고, 개인적 삶과 연관하여 분단을 인식하는 탈이념적 인식을 지적한 바 있다.[10]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작품 세계의 이해와 인물 분석을 병행하였고, 갈등 과정에서 소외의식과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였으며, 설득력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인물을 분석한 김인선은, 이기주의적 인물, 사회로부터 유리된 인물, 권위주의적 인물, 자동인형적 인물, 그리고 소외를 극복하며 인간의 본성을 되찾으려는 인물 등으로 구분했다.[11] 김분청은, 실의와 반항의 인간형을 통한 사회 고발, 무기력과 현실 적응의 인간형을 통한 세태 묘사, 연민과 자학의 인간형을 통한 내면 묘사, 그리고 온정 순박의 인간형이 있는 휴머니티 추구라고 보았다.[12] 이 연구들은 비교적 많은 작품을 망라하여 인물형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도 유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물은 상황 및 다른 인물과의 상호관계에서 의미가 부여되므로 갈등 중심의 고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6) 황헌식(1980), 前揭書, pp.290-298.
7) 권유(1985), "이범선 소설론-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동학어문론집』, 제 20집, 동악어문학회.
8) 박수윤(1990), "이범선 단편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9) 김상홍(1985), "이범선 소설 연구-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0) 차원현(1991), "1950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pp.111-114.
11) 김인선(1991), "이범선의 단편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12) 김분청(1987), "이범선 소설 연구 -시대상황과 관련한 인간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한편, 이범선의 작품을 기법과 미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소설의 구조와 상징에 대해 관심을 가진 논문들도 다수 있다.

김우종은, 문장력이나 단편의 기법에 있어서도 빈틈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토착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13] 윤재근은 이범선의 문학을, 삶의 內力에서 비롯된 '살아야 한다'는 리리시즘과, 삶의 外力에서 비롯된 '살지 못하게 한다'는 리얼리즘, 그리고, 內力과 外力의 관련에서 '살게 해야 한다'는 인간성 회복의 휴머니즘 등으로 창작 형태를 추출한 바 있다.[14] 신경득은 이범선의 작품을 소설미학을 바탕으로 존재적인 삶의 양식을 조명하는 작품과 세태소설 또는 참여문학으로 불리는 구조의 작품으로 분류하고,[15] 이용남은 서정과 고발의 미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16]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일부 작품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작품 유형을 타당성 있게 설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해경은, 이범선의 작품의 원형은 한민족의 집단의식이며, 닫힌 세계의 고발의식과 열린 세계의 진리 추구가 리리시즘과 휴머니즘의 표상으로 소설미학을 이루었다고 평했다.[17] 이안희는 상징적 대립 구조, 상황과의 대립 구조, 과거와 현재의 대립 구조를 갖는다고 보았다.[18] 이 연구들은 기법 및 구조와 소설미학적 효과와의 관계를 비교적 긴밀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이범선의 모든 작품을 총괄적으로 살피지 않아서 부분적인 고찰에 지나지 못하였으며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도 소홀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물들의 갈등을 분석하고 그 갈등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떤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모든 작품의 갈등 동인을 살피고 귀납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갈등 양상을 추출하여 분류하였으며, 갈등의 동

---

13) 김우종(1975), "해방 30년 한국문단사", 『한국문학』 1975. 8월호, pp.255-256. 김병욱(1979), "삶의 인식과 성찰", 『현대문학』 1979.7월호. p.284 참조.
14) 윤재근(1979), "원형과 사상의 모순율-이범선론", 『현대문학』 통권270권 참조.
15) 신경득(1980), "소설과 사회의 변주-이범선론-", 『현대문학』 통권 308호.
16) 이용남(1991), "서정과 고발의 미학-이범선과 그의 작품 세계-", 『인문과학연구논총』, 제 8호,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참조.
17) 이해경(1987), "이범선 소설 연구 -단편소설에 나타난 상징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대학원.
18) 이안희(1983), "이범선 소설 연구-구조내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대학원.

인들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갈등의 동기와 양상'에서는, 동기에 따라 '분단과 전란의 갈등', '사회적 갈등', '내면적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1절에서는 일제하에서부터 6.25 직후까지 受難과 外傷들을 살피려 한다. 2절에서는 '사회적 갈등 양상'을 '이기주의와 인정주의', '名分과 實在'로 구분한다. 그리고 인정과 양심을 견지했지만, 부당하게 소외되고 희생된 인물들이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코저의 갈등 이론'[19]과 프롬의 도피의 메카니즘 중에서 '자동인형적 순응'[20]에 대한 이론을 원용하고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태도를 설정하였다.

(1) 대립 -> 좌절의 원인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적의 표출.
(2) 풍자 -> 그러한 적대 행위를 다른 대체물로 환치하는 것.
(3) 극복 -> 대상이나 그 대체물이 불필요한, 그 자체가 만족감을 주는 긴장해소 행위.
(4) 동조 -> 현실이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따르는 자동인형적 순응.

그리고 3절에서는 내면적 갈등으로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후회와 희생을 다뤘다.

'갈등 구조의 형상화 방법'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결과를 근거로 주제의 유형을 '낙원회귀에의 향수', '양심의 분노와 고발', '희생과 구원의 변증법'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그레마스의 이항 대립 구조를 이용하여 주제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상징과 대조, '귀향 모티프', '닫힘 모티프'와 '속죄양 모티프'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요컨대, 주제는 작중 인물이 자신의 내부에서 개인과 사회라는 상관 관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 코저는 갈등표출을 (1) 직접적인 적의 표출, (2) 대체물로 환치, (3) 그 자체가 만족을 주는 긴장해소행위 등의 세 종류로 제시했다. - 코저(1956), 『갈등의 사회적 기능』, 박재환 역, 한길사, 1980, p.51 참조.

20) 개인은 문화양식이 그에게 제공한 사람됨을 완전히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나>와 세계와의 갈등이 사라지며 그와 함께 고독과 무력에 관한 의식적인 공포도 사라진다..... 그러나 그가 지불하는 댓가는 큰 것으로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것이다. - 프롬(1941), 『자유로부터의 도피 외』, 이규호 역(1987), 삼성출판사, pp.166-167.

에서 일어나는 괴리현상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작중인물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작품 이해의 관건이며, 작가의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을 탐색하는 귀납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범선 단편소설에 나타난 갈등 연구를 통하여, 시대와 사회를 알고, 바람직한 인간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갈등의 이론적 고찰

1. 소설의 갈등

갈등은 공유할 수 없는 조건이나 목표 선택이 요구될 때나, 둘 이상의 異質的 요소가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에, 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하거나 자신의 안정이 피해당할 때에 경험된다. 이런 갈등이 소설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작가가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갈등하는 총체로 보'[21]고 있으며, 독자의 수용도 갈등 구조에 의해 도움을 얻기 때문이다. 그런데 갈등의 원인과 결과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문학 자체보다 갈등사회학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사회학은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갈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온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갈등 이론은 사회 조직 유형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며 변동되는가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과정이란 부분적으로 동료나 타인들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목적들, 상호배타적인 이익들, 적의, 불합의, 전쟁, 긴장, 모순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포괄적으로는 '他者를 박탈하고 통제하고 해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상호작용'[22]으로 본다. 그런데 갈등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갈등은 단순히 부정적 현상으로 간주되기보다는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갈등을 사회 내부의 서로 충돌하는 요소들 사이의 일정한 조화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대개 자아와 행복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그것을 억제하고 회의하게 하는 요인들과의 '갈등'[23]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과

---

21) 미셸 제라파, 『소설과 사회』, 이동렬 역(1983), 문학과 지성사, p.79.

22) J.H.터너(1978), 『사회학 이론의 구조』, 김진균 외 역(1989), 한길사, p.208 참조.

23)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갈등은 한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전개되는 것으로서, 정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진실된 세계를 지향'[24]하는 소설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통해 창조된다. 뿐만 아니라, 작가는 그 갈등을 제시, 전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을 그 갈등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법과 장치를 구사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갈등은 주로 인물과 사건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갈등 과정이 곧 플롯을 형성하고 있다. 대개 전반부에서는 갈등이 발생하여 구체화되며, 후반부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해결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갈등은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인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며, '일정한 조화'[25]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편의 소설은 갈등으로 인하여 긴장이 유발되며 그 긴장은 소설의 구조 자체에 활력을 주고, 나아가 주제의 형상화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은 갈등으로 조성된 긴장감이 해결점에 이를 때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특정 사건이나 현실에 있어서, 일반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의미를 형상화할 때보다 드러나지 않거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순이나 부조리를 폭로하고 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때에 더 큰 미적 효과를 갖는다. 이범선 소설의 인물들이 주로 소시민들인 것과, 평범하지 않은 사회적 문제들을 일상적인 체험 속에서 밝혀 내는 것은 이와 같은 미적 효과를 창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범선 소설의 주류는, 그의 체험을 토대로 하여 비인간화와 사회 모순을 고발 비판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갈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체험 시대인 일제치하에서부터 전쟁과 戰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불안의식과 인간성의 황폐화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이 소설에서도 이루어졌다. 한편, 한

신 내부에서 각기 틀린 방향의 힘과 힘이 충돌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융은 '자기(self)와 자아(ego)'의 분리 현상으로, 프로이드는 '이드(Id)와 자아(Ego)' 또는 '자아와 초자아(Super-ego)' 간의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24) 조동일은『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1989)에서 '소설은 자아와 세계가 상호 우위에 입각하여 대결하면서 자아와 세계 양쪽에 통용될 수 있는 진실성 즉 소설적 진실성을 추구'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대결은 조화의 예비적 단계로서의 갈등을 의미한다.

25) 토도로프는, 소설은 '평형 -> 비평형 -> 평형'의 플롯 구조를 갖는다고 하면서, 이 비평형은 안정 상태의 파괴라고 했는데, 이는 갈등의 특성과 부합한다. - 김천혜(1990),『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p.177 참고.

국전쟁은 서구의 실존주의와 상통하는 문학적 潮流가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으며, 참여문학의 동인이 되기도 하였다. 소설에서 이 시기의 수난의 시대적 의미는 작품의 갈등 양상들을 통하여 구현되었는데, 이것은 당대의 사람들의 시대적 고충을 토로한 것들이었다. 다음에는 갈등의 시대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갈등의 시대적 의미

1950년대의 한국전쟁은 사회와 삶과 인간을 변화시켰다. 전쟁 중의 잔혹한 인명 경시와 극한상황의 체험 이외에도 전쟁의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저질러졌던 행동에 대한 자책 등이 정신적, 육체적 외상을 남겼다. 이범선 소설의 인물들은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회의하고, 생존과 도의를 위해 방황하다가 자기환멸을 겪는다. 전후에도 이데올로기의 긴장 대립에 의해 정치적 권위주의를 가져왔으며, 사회와 경제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작가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의 조건들을 성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내적, 외적 갈등을 수반하였으므로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은 시대와 삶의 모습을 반영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사람들에게 생존 위기의 극한상황은 선한 인간성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으며, 전쟁과 전후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은 자아의 상실을 초래했다. 전후의 소설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부정되고 훼손된 인간 존엄성의 고양과 인간애의 회복, 자아의 재정립, 사회적 '아노미'[26]의 극복이라는 몫을 담당해야 했다. 구체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毁損되었던 인간애를 회복하며, 동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민족적 염원이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버리고 성을 교환의 조건으로 삼았던 상황윤리로부터의 환원이 요청되었다. 또한 전쟁으로 심화된 불평등한 사회 모순과 타락한 인간관계를 신뢰

26) 아노미는 E.Durkheim의 용어로서,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의 가치나 도덕 기준을 잃은 혼돈상태, 불안, 자기 상실감, 무력감 등에서 볼 수 있는 부적응상태를 의미한다.

와 양심에 근거하여 정당성 있는 것으로 정립하려는 의지는 당연한 작가적 소망이었을 것이다. 작가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述懷하고 있다.

> 살아가노라면 마음의 창유리에 먼지가 끼고 또 얼룩이 진다. 나는 거기 여러 가지 모양의 얼룩을 본다. 가다가 한 번씩 이 마음의 창유리를 석유 람프처럼 닦아 본다. 이렇게 호- 입김을 불어 가만히 지워버리는 마음의 얼룩들. 이것이 지금까지 나의 작품이었다.[27]

이 내용은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왜곡과 모순을 밝히고 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그의 작품의 갈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갈등의 順機能면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특히 강조했던 L.A.코저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코저는, 수단으로서의 갈등인 현실적 갈등과, 그 자체가 목적인 비현실적 갈등으로 구분하였다.[28] 특히, 짐멜의 유기체론을 수용하여, 어떤 조건 하에서는 갈등이 사회체제나 그것의 중요한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

> 갈등은 그것이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언제나 역기능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갈등이 종종 필요하다. 서로에 대해 적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의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집단 성원들은 완전히 꺾여졌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며,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갇힌 적대감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갈등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29]

이와 유사한 脈絡에서, 소설은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紛糾를 맞다가 해소에 이르게 함으로써 현실과 자신과의 대등한 관계를 조성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안정감과 自己愛의 형성을 도와 주고, 때로는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유

---

27) 이범선(1958), "후기",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P.285.

28) "현실적 갈등은, 어떤 관계 안에서 요구 좌절의 원인이라고 상정되는 대상에 직접적으로 향하는 갈등이며, 특정한 결과를 의도한다. 비현실적 갈등은, 여러 관계 사이에서 적대자들의 긴장해소의 필요 때문에 야기되며, 쟁점은 직접적으로 무관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특정한 지향도 없다." - L.A.코저(1956), 『갈등의 사회적 기능』, 박재환 역(1980), 한길사, p.64.

29) 코저(1956), 전게서, p.60.

지에 유익한 기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소설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로 쓰여졌으므로 통합의 기초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갈등의 유형

갈등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이분법에 의한다고 생각되었다. 갈등사회학에서는 갈등 유형이 기능에 근거한 데 비하여, 소설에서는 갈등의 주체나 갈등 국면에 따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코저의 갈등 유형에 따르면, 이범선 소설에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들은 부정적 감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치나 집단들에 대하여 진정한 거부를 나타내고 不動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갈등이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인간 심리와 사랑이라는 내면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대부분 비현실적 갈등이 된다.

그런데 소설에서 이 갈등은 그 주체에 따라,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 인간과 사회와의 갈등, 한 관념과 다른 관념 간의 갈등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갈등이 작용하는 국면에 따라 내면적 갈등과 외부적 세계와의 갈등으로 제시되었다.[30] 내면적 갈등 양상은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 개인의 내면적 갈등, 운명적이기보다는 성격적이며 사회적인 면이 우세한 갈등이다. 외부적 세계와의 갈등은 환경과의 갈등, 운명과의 갈등, 인간과 사회와의 갈등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다가 운명과의 갈등을 세분하여 갈등의 양상을 세 가지로 구분한 것으로는 현길언의 견해가 있다. 갈등은 삶의 조건, 사회 구조의 모순과 인간 존재의 한계성 때문에 비롯되었으며, 소설 인물의 인간적 진실은 이 갈등과 그 극복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고 전제하고, 갈등의 원인은 '존재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자의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31]고 주장한 바 있

30) Brooks and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Ine. 1959, pp.652 참고.

31) 존재론적 갈등은 신의 능력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한계성, 죽음과 운명의 문제에

다. 그런데 이같은 구분으로는 전쟁에서 생명 존중과 인간성 회복을 소망했던 피해자들의 갈등 양상을 효과적으로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를테면, 그는 戰場에서 신과 운명에 대한 항의를 존재론적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쟁을 사회적 갈등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1950년대의 한국소설을 논할 때에 갈등의 양상으로 辨別되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다. 유학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갈등 유형을 제시했다. (1) 내면적 갈등의 형태는 내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개인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특정한 결과 달성에 대한 지향이 단선적이거나 확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사회적 갈등은 개인이라는 주체와 집단이라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인물들의 행위나 사고의 양태라 규정하고, (3) 분단의식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6.25로 말미암은 집단적인 對峙狀況과 분단, 이데올로기로 인한 것이라 했다.[32]

이 분류는 이범선 소설의 갈등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것은 이범선 소설의 소재가 주로 작가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인 인간 관계와 이데올로기, 분단과 귀향, 사랑과 현실, 양심과 타락상 등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형은 이범선 소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異見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그의 소설이 한국전쟁을 주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념을 인정과 자아 실현 및 생명 존중 등으로 인식하는 脫理念的 傾向 때문에 이데올로기 갈등이 선명하지 않다. 그래서 분단과 전란이 갈등 국면이 되는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작품들이 창작된 시기를 따라 순서를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갈등 양상을, 분단과 전란의 갈등, 사회적 갈등, 내면적 갈등 등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로 '분단과 전란의 갈등'에서는 이범선의 전쟁의 체험을 소재로 한 전기 작품들을 포함했는데, 이 작품들은 운명에 의해 자신의 삶의 낙원을 잃고

대한 갈등,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이다. 사회적 갈등은, 우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게 하는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되는데,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가난과 전쟁과 은폐된 제도적인 것을 포함한 폭력, 반문화적인 구조적 퇴폐 등이다. 자아와 자아와의 갈등의 원인은 사회적 자아, 도덕적 자아, 순수한 자아 간의 갈등이며, 인간 본성과 심리적 문제, 사회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 현길언,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 문학과 비평사, 1990, pp.159-162 참조.

32) 유학영(1987), 전게서, pp.63-119 참조.

고통스러워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왜곡과 문명의 황폐는, 인간의 기초적이고 인정적인 생존을 압박하는 조건들로서 갈등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회적 갈등'은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했던 후기 작품들에서 나타났는데, '몰염치가 곧 생존의 도구'이고, '비양심이나 부도덕이 곧 致富의 조건'이라는 유형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 준다. 이같은 경제의 불평등과, 정치적 정당성과 안정의 缺如는 사회적 갈등의 주된 이유였다. 끝으로 '내면적 갈등'에서는 진정한 자아의 회복과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 행복의 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33]

Ⅲ. 갈등의 동기와 양상

1. 분단과 전란의 갈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광복 후, 국내적으로는 억눌렸던 감정과 사고의 다양한 표출로 인한 혼란이 미처 진정되지 않았고, 국외적으로는 2차 대전 직후의 동서 대립의 양극화와 냉전이 심화되고 있었다.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제한적인 외교정책은 소련과 북한이 야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으며, 중국은 이 냉전구조에서 상대적 우위를 占有하고자 참전을 결정함으로써, 대전 후, 인류사상 최대의 참화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일제치하에서 인적, 물적으로 제한된 삶을 살았던 서민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비극이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서민이 겪었던 갈등과 비극을 '실향과 귀향의지', '전쟁과 생존의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실향의 원인은 분단시대에 월

33) 이범선은 '따스한 마음으로 인간을 관찰한 서정적인 것'과 '비판을 앞세운 대사회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 이범선 대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문학사상』, 1974. 2월호, p.218 참고.

남과 피난이었는데, 공산치하의 체험과 월남 후의 빈궁한 생활과 향수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1) 실향과 귀향의지

(1) 월남

해방 직후, 越南은 정치, 사상,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작가는 유복했던 고향에서의 체험을 평화와 인정이 있는 낙원으로 설정하고, 전쟁과 월남 이후의 궁핍한 상황을 낙원 상실의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34] 이러한 월남 체험을 상세히 다룬 작품들로는 「수심가」, 「살모사」 등이 있다.

「수심가」[35]는 이북에서 있었던 토지개혁을 다루면서, 그 과정에서 과거의 지주와 소작인, 머슴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변화되고 그에 따라 인심마저 변해가는 세태를 그렸다.

> 지난 봄에 토지개혁이 있었다.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집 지주였던 민네 집을 무슨 흉가나처럼 꺼려들 하였다. (중략) 그야 뒤에서 감시하고 있는 공산당원들의 앞을 꾸미기 위한 점이 없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치고도 너무나 야속스러웠다.
>
> 「수심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리고 천식을 통해서 옛 정을 감추어야 하는 현실, 자유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구조의 도식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모순을 본다. 그러나 천식은 아무도 없는 달밤에, 민을 업고서 삼팔선을 넘겨 준다면서 '한 오백년'을 부른다.

> '가야디. 그럼 가야디. 걱정 마라 그까짓. 내 늙었어두 아직. 가야디. 가야디. 내 이렇게 업어다래두 넘겨줄라, 그까짓 삼팔선.'

---

34) 이범선은 평안남도 운학리에서 500석쯤 하는 지주의 아들로 성장했으며, 광복 후 지주들에 대한 숙청이 있자 다음해 전 가족이 월남하여, 일시 해방촌에 기거했었다. - 이범선 대담취재(1974), **前揭書**, p.218 참조.

35) 이범선(1957), 「수심가」, 『현대한국문학전집(6)』, 신구문화사, 1969.
「수심가」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로 등장 인물 천식이도 실존 인물이라는 견해가 있다. - 차정자(1983), "이범선 작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5 참조.

천식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넘어섰다.

「수심가」

작가는 두 인물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신을 알리고, 분단 극복의 힘은 인정 속에 있다고 하였다.

「살모사」[36]에서는, 병약한 상전을 목매달고 그 앞에서 잠결의 여인을 덮쳐 성욕을 채우고 이 '살모사'를 잉태케 한 사건으로써 공산주의의 야합 과정을 암시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살모사'는 천민의 혈통으로 공산당원이 되기 위하여 범죄자인 머슴 최서방을 아버지로 받아들였다가, 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에서 공금횡령죄로 죽인다. 더욱이 恨을 인내하며 그를 키워 준 어머니마저도 다른 교인들과 함께 학살한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던 話者는 '살모사'가 두려워 피해의식과 환상에 시달리다가 극도의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서 태도를 전환한다. 그것으로써 작가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는 것은, 그 상대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적극적 해결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2) 실향

6.25는 막대한 피해와 희생뿐만 아니라, 失鄕과 離散의 아픔을 남겼다. 이범선의 작품에서 귀향을 憩求하는 인물들은 기다림 끝에 체념하거나 미쳐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 중에서도 귀향을 가로막는 현실 앞에서 체념하고 그리움에 젖는 것으로는 「갈매기」를 비롯하여 「환상」, 「토정비결」, 「고국」 등이 있다.

「갈매기」[37]는, 피난처인 섬에서 느끼는 그리움과 신세대의 동경을 함축적이고 암시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상징적으로 낙원을 꿈꾸는 인물들'[38]을 보여 주었다. 다방 갈매기 부부와 세 노인은 일제강점과 전란으로 고통스러웠던 겨레의 恨을 연상시키고, 연락선과 '갈매기'[39]는 자유에 대한 동경을

36) 이범선(1964), 「살모사」, 『학마을 사람들』, 마당문고사, 1990.
37) 이범선(1958), 「갈매기」, 『학마을 사람들』, 마당문고사, 1990.
38) 이안희(1983), 전게서, p.18 참조.
39) 갈매기는 박용준의 「용초도근해」에서는 자유의 표본으로, 최인훈의 「광장」에서 자유와 그리움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상징한다. 작가는 전쟁의 피해자들이 신뢰와 인정을 간직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정서적 공동체인 것이 낙원의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공감을 이루던 다방 갈매기 부부의 죽음은 훈을 새로운 동경에 젖게 한다.

> 언제나 빤히 켜져 있던 그 이층 창문은 캄캄하다. 어쩐지 이제 자기도 이 포구를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는 다시 달을 향해 선다. 밤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갈매기 두 마리가 훨훨 달을 향해 저 앞으로 날아간다.
>
> 「갈매기」

이처럼 훈은 전후 사회가 추구해야 할 낙원 복귀를 지향하고 동경했으며, 신세대인 남매들도 미지의 세계를 동경한다.

「갈매기」는 전쟁의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동경을 포괄적이고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비해, 「환상」은 **離散**의 고통을, 「고국」은 전쟁고아의 실향감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환상」[40]의 훈의 갈등은, 1.4후퇴 때 **單身** 피난으로 약혼녀와 이별한 데서 말미암았다. 훈은 그녀도 피난했으면 하고 서울 거리를 찾아 헤매었으나 못 만난다. 그러던 중에 전방의 신부 간판을 난이로 착각하여 집착하다가, 그 **換置**마저 좌절됨으로써 이산의 아픔을 심화시키고 있다. 「토정비결」[41]은 섬에 피난한 교사들이 전후에 고립감을 느끼며 귀향과 **上京**을 고대하는 중에, 토정비결을 화제로 삼아 인물들의 심리를 묘사했다. 그들의 갈등 양상은 스스로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운명과 현실에 부딪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무력감의 원인은 전쟁이기도 하였다. 「고국」[42]에서는 고아가 피난와서 도원리 노부부와 만나고, 그 때 사귄 혹인 병사의 초청으로 **渡美**해서 자수성가 후 일시 귀국했으나 마을이 **水沒**되어 허탈해 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인정적인 유대감과 그리워할 대상이 없는 고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편, 분단의 현실을 **受容**할 수 없어서 미쳐버리는 것은, 「달팽이」를 비롯하여 「오발탄」, 「단풍」 등이 있다. 「달팽이」[43]는 홍남철수로 가족을 두고 부

---

40) 이범선(1959), 「환상」, 『오발탄』, 신흥출판사, 1959.
41) 이범선(1958), 「토정비결」,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42) 이범선(1980), 「고국」, 『소설문학』, 1980.7월호.
43) 이범선(1956), 「달팽이」,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산 근처의 섬에 단신 피난하여, 사흘이면 돌아간다던 귀향을 못 이룬 노인의 이야기이다. 가족과 결별된 삶을 귀양살이라 하고, 피난온 날부터 사흘씩 꼽아 미군화물선을 기다리던 윤 노인은, 휴전 소식을 듣자 미쳐 버린다.

> 그는 와 와 밀려드는 파도를 향해 섰다. 갈매기조차 날지 않는 성난 바다는 무서웠다. 그래도 지금 윤 노인 앞에 와 다은 미군 배는 그 큰 뒷문을 떡 열어 제친 채 까딱도 안했다. (중략)
>
> 그의 입 가에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분간키 어려운 웃음이 흐르고 있었다.
>
> 그 날부터 윤 노인은 삼 년 전보다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은 '룩크사크'를 항상 걸머지고, 또 앞에는 아들의 조그마한 가죽 구두를 한 켜레 소중히 두 손으로 받쳐들고, 이 포구를 이리 저리 헤매고 다녔다.
>
> 「달팽이」

작가가 미쳐버린 윤 노인의 이야기를 다룬 것은, 그를 고향으로 되돌릴 화해의 역사가 도래하지 않았고, 귀향의 애절한 꿈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발탄」[44]에서는 전쟁과 실향으로 인한 정신적 파탄, 절대적 빈곤 등이 고발되고, 나라를 찾고서도 집을 잃는 비극적 상황이 아이러니칼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어머니'의 역사 인식이 감성적, 인본적이라면, '철호'의 인식은 이성적, 논리적이다. 어머니에게 고향이란 인간다운 삶과 가치의 터전이었으므로, 그 당연한 귀향마저 주어지지 않는 자유란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었다. 그러기에 분단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었고, 그런 까닭에 어머니는 철호의 이성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 "난 모르겠다. 삼팔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꼭 닿도록 담을 쌓았단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는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
> 「오발탄」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 아픔을 풀어내는 대신에 꾸밈없는 인간 본성을 통하

44) 이범선(1959), 「오발탄」, 『오발탄』, 신흥출판사, 1959.
김준은 「오발탄」이 소설의 기법면에서도 성공한 작품으로서, 집약적인 상황과 분위기 묘사, 상징적 수법, 평면적이고 개성적인 인물의 설정,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일상적인 주제의식, 회상적 이미지 접근방식 등을 효과적으로 배려했다고 평했다. - 김준(1985), "전후시대의 상혼과 향수", 『한국소설의 문제작』, 도서출판일념, p.119.

여 분단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감성의 논리는 힘을 갖지 못한 서민들의 방법이었고, 그 한계 앞에서 정신 이상이 되는 어머니의 모습 또한 역사 앞에 무력한 감성적 인간이 갖는 운명이었을 것이다.

「단풍」[45]은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戰後 현실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여인의 옷차림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갈등—중공군의 솜저고리로 代喩되는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미군복으로 대유되는 외래문화 영향과 정치적, 경제적 의존, 그리고 일본의 잔재와 피해의식을 의미한다. 이 여인에 있어서 생존의 유일한 희망인 귀향은 휴전선으로 인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통일의 당위성을 제기함으로써 보편적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단은 사람들을 삶의 뿌리인 고향에서 쫓아냈고,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하였다. 그것은 고향에서 평화롭고 인정스레 살던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더군다나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가족과 연인을 두고 온 이의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그것은 체념과 정신적 파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으로 미치고서도 한결같이 귀향에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일제치하와 전쟁 중의 좌절과 실향을 그리면서, 소박한 개인이나 가족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가가, 개개인의 삶이 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집단은 완전한 의미의 국가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전쟁과 생존의지

(1) 전쟁

전쟁은 각 개인들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내몰았고 예기치 않았던 이산과 피난살이의 고통, 동족 간의 피흘림과 파괴를 불렀다. 전시의 질서를 맡아야 할 위정자들은 허위와 기만에 차 있었고, 정부의 허세를 신뢰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위험에 휘말렸다. 그런 와중에서 생존을 위하여 인정과 기존의 가치는 훼손되었다. 이것은 이범선의 소설에서 주된 갈등을 이루었고, 그 영향은 실향성, 고립성, 가치의 혼란성, 不信性, 沒人情性 등으로 나타났다.

45) 이범선(1967), 「단풍」, 『현대문학』, 1967. 5월호.

이범선은 전시의 생존을 위한 안간힘과 좌절들을 다루었는데, 전란의 체험을 다룬 대표작으로는 「학마을 사람들」, 「그의 遺作」, 「더퍼리 田書房」, 「分水嶺」, 「傷痕의 來歷」 등이 있으며, 피난민의 애환을 절실하게 다룬 작품으로는 「二一九章」이 있다.

「학마을 사람들」[46]은 일제치하부터 6.25까지의 삶과 수난을, 학마을의 전승되는 학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 보여 주었다. 학은 평화와 민족성을 상징하고, 학의 도래를 기원하는 것은 안정 희구를 뜻했다. 바우는 학을 계급혁명의 희생양으로 택했고, 학의 죽음은 전통적 가치의 파괴와 화해로운 삶의 破綻을 의미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驚愕한다.

> '학이! 누가 학을.....'
> 무서운 노여움이 찬 소리였다. 이장 영감은 팔을 허위적거리며 학이 쓰러진 쪽으로 한 걸음 옮겨 놓았다. 그러나 다음 또 한 발을 내디디다 말고 픅 그 자리에 까무러치고 말았다.
>
> 「학마을 사람들」

그리고 전쟁으로 불탄 학나무 대신 애송나무를 심는 것은 역사 회복과 전통 계승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다. 이것과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작품인 「그의 유작」[47]은 일제치하에서부터 서울 수복 직전까지, 41세의 가난하고 외롭고 불행했던 화가가 겪은 갈등과 고통을 전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주라구, 적당히 주라구. 그러고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지 않나!"
> 하면서 허허 웃음으로써,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던져주는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법까지 들고 나와, 항거하기에는 이미 절벽 같았고, 그렇다고 순종하기에는 끝내 피가 용서하지 않던 그런 왜정말기의 시세(時勢)에서도, 압사(壓死) 당하지만은 말고 한번은 뜻대로 그림을 그려보자고 모질게 참아오던 그였지만, 자기 예술을 지켜 웅크리고 참으며 기다려야 했던 그 전쟁 기간이 너무나 길었던 까닭에 그는 그렇게 빈손으로 툇마루에 걸터앉아 하늘이나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다.
>
> 「그의 유작」

그의 자아와 예술이 억눌리고 왜곡을 강요당했을 때,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거나 거부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자기 그림의 추구가 자신의 존

46) 이범선(1957), 「학마을 사람들」,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47) 이범선(1966), 「그의 유작」, 『한국단편문학전집(11권)』, 정음사, 1974.

재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주된 갈등은 순수한 자아 追求와 이를 가로막는 압제 및 사상과의 대립에서 빚어진 것이다.

한편 激戰의 상황을 현장감 있게 서술한 작품으로 「더퍼리 전서방」, 「분수령」, 「상흔의 내력」 등이 있다. 「더퍼리 전서방」[48]에서, 전서방은 월남민으로서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과 자유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이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공산치하 서울의 대피호에 있는 많은 양민들이 폭격에 희생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서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갔다가 희생당한다. 「분수령」[49]에서 의용군으로 끌려가다가 이탈한 두 학생은, 죽음의 恐怖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의식뿐이지, 삶의 방향을 찾아낸 것은 아니었다. 친구가 北을 선택한 것도 사상적 선택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라고 했다. 또한 이미 대립되어 있는 구조에 소속됨으로써 우정과 사랑을 버리고 냉정한 적대자로 바뀌어지는 전쟁의 비인간성과 맹목성을 비판했다. 한편, 사상의 전향을 보이는 「상흔의 내력」[50]에서, 장손은 어렸을 때 김광수와의 갈등으로 인해 분을 품었기에 쉽게 인정을 잊고 공산당원이 되었다. 그러나 납북 중에 어머니를 위하는 소년을 공산군 장교가 사살하자 충격받고 국군에 입대한다. 김광수는 격전지에서 부상당한 장손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고, 後送되어서는 그를 문병한다. 장손의 공산당 前歷과 자신의 부모와 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허물을 덮어둔 행동은, 기독교적 사랑의 發現[51]이라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전쟁의 外傷

전쟁의 참혹함이나 피난의 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잃고 위험 가운데 처하게 했다. 이와 같은 극한상황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나타난다.

「二一九章」[52]의 민은 피난길의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폐렴으로 죽은 어린

48) 이범선(1957), 「더퍼리 전서방」, 『현대문학』, 1957. 9월호.
49) 이범선(1963), 「분수령」, 『현대문학』, 1963. 11월호.
50) 이범선(1966), 「상흔의 내력」, 『신동아』, 1966. 4월호.
51)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 『구약성경』, "잠언", 10:12
52) 이범선(1958), 「219장」,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애를 雪葬하고, 그 후 고통을 당한다. 자기도 전란의 희생자인데 자신이 어린애를 죽였다고 질책하는 형벌같은 울음 소리와 환상은 그를 미칠 지경에까지 몰아갔다.

> 이렇게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애의 울음 소리와, 눈 앞에서 팔과 다리를 제처진 자라 모양 허공을 향해 허우적거리는 어린애의 환상에 쫓기어 반 미친 사람이 되어 버리는 민의 백지장 같은 이마에 축축이 악땀이 내밸 때쯤 되면 그 소리는 안개가 걷히듯 멀리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긴 한숨과 함께 이번엔 또 무서운 자문자답을 해야하는 것이었다.
> '너는 네 어린것을 죽였다.'
> - 아니다. 나는 죽이지는 않았다. -
> '그럼 너는 죽어가는 네 어린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
> 「二一九章」

이처럼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민이 이끌린 것은 찬송가와 교회였다. 거기서 목사가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라는 말을 듣고, 민은 平靜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민'의 갈등은 생명 존중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신도 전쟁의 피해자인데 그에게 내려진 정신적 채찍은 戰犯者에게 돌려져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기에 '민'의 갈등은 생명 존중과 反戰에 대한 감정적 몰입을 크게 한다.

「자살당한 개」[53]는 극도의 절망과 운명에의 분노를 느끼는 상이군인의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그 아픔과 고뇌를 진실되게 그리고 있다. 그 분노는 전쟁이 자신을 불구가 되게 하고, 애인과의 행복했던 관계를 해친 데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그는 식구들이 불구인 개에게 불만을 나타내고 불구가 된 책임을 전가하거나 연민을 품는 것을 통해서, 식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심리를 유추해 낸다. 그러다가 운명공동체로 여기던 개를 비난함으로써 자기혐오의 심리를 드러내고, 목졸라 죽임으로써 자학증을 표출한다.

> 「뛰어 올라 봐야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지. 응, 그렇지? 그렇지? 뛰어 본 다음에 오는 그 절망감이 무서운 거지. 절망보다는 꿈이라도 품고 있자는 거지. 못했다기보다는 시시해서 안 했노라고 자기 자신을 속여 보자는 수작이지. 이 비겁한 자식아. 이 병신, 능청스러운 개자식아!」
> 영철은 끓어앉은 채 점점 더 두 손아귀에 힘을 주며 팔을 위로 쳐들어올렸다.

53) 이범선(1963), 「자살당한 개」, 『한국현대문학전집』, 삼성출판사, 1988.

그리고 그는 '변함없이 그를 사랑한다'는 애인을 솔직히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안타까워한다. 이러한 자아분열적 심리는 전쟁의 상처로서, 자신이 불구가 된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환상적이며 과거회귀적인 사랑에 집착한 결과였다.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54]은 사격장 주변으로 모여든 전쟁 피해자들의 이야기다. 자탄리 사격장에서 파편을 줍는 동래와 복순의 사랑, 상이용사인 충삼의 소망, 그리고 이들을 괴롭히는 이기적이고 음탕한 '메기'와의 갈등을 그렸다. 이 작품은 세 유형의 공간을 그렸는데, 하나는 소외된 무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듯한 세상이고, 그 곳의 사람들은 '토굴족'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다. 또 하나의 공간은 동두천으로서 '양놈'들의 위안부로 연명하며 정신적으로 파탄하는 곳이고, 자탄리의 소외된 토굴은 파편을 줍기 위해 목숨을 거는 곳이다. 그러나 소외와 낙원 상실의 숙명을 거듭해 온 이들을 통해서 꿈과 인정과 사랑을 추구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작품에서 보이는 것은 '쌍방의 무간섭을 항변'[55]하는 자아중심적 국가관만이 아니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장에서 싸우는 희생적 국가관도 있다. 그러므로 이범선의 역사의식은 폭넓은 작가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소극적 서민에서부터 적극적인 실천인으로서의 인식까지 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물들의 대립은 인정과 평화의 유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북의 이념 갈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것은 작가가 전쟁을 이념적 대립의 결과로 인식하기보다는 인정 상실과 인간존엄성의 결여를 초래한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인간의 본성을 끊임없이 회의하게 했는데, 그의 소설은 그 갈등을 넘어 인정과 자아를 회복하는 데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거기에서 희생은 화해를 위한 동기를 增幅시키고, 기독교적 사랑, 또는 인정으로써 화해를 이루고 있다.

---

54) 이범선(1968),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 『현대문학』, 1968.

55) 이범선은 6.25때 정부의 배신으로 서울에 머물러 곤욕을 치르고서 정부를 불신하고 작품을 통하여 정부의 무간섭을 주장하고 있다. 김상홍, 전게서, p.22 참조.

2. 사회적 갈등

개인은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의 특성과 위치를 찾고 자신의 역활을 수행함으로써 존재하고, 바람직한 사회는 인정적 유대감에 의해서 화해를 이룬다. 그런데 전쟁의 각박한 체험은 생존을 위해 몰인정한 세태를 야기하고, 사회구조를 부조리하게 왜곡하여 선한 서민을 소외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은 끊임 없이 자아를 억압하고, 생존을 어렵게 했으므로 개인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작가는 사회의 정당성과 인정의 회복을 원했기에, 현실과 대립하거나 풍자하고,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화해를 지향했다. 따라서 갈등 양상은 인정과 신뢰를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인정주의'와, 정당성 검증을 위한 '명분과 실재' 등으로 구분된다. 다음에는 '이기주의와 인정주의', '명분과 실재'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기주의와 인정주의

전쟁 전후의 각박한 체험은 전통적인 인정을 허물고 인간성을 황폐화시켰으며, 생존을 위한 이기주의를 합리화했다. 이 이기주의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만연하여, 사회적 불신감과 불화를 가속화하였다. 다음에는 '전후의 정치', '사회와 경제'로 나누어서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戰後의 정치

분단의 고착은 국내적으로 정치의 경직화로 이어져 다양한 政見과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정치문화 형성을 어렵게 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만 安住하게 하였다. 1959년 2월, 일본이 교포 북송을 결정한 데에 항의하고자 한국정부는 대일교역 중단을 발표했으나 곧 해제했고, 그 해 12월 교포 북송이 시작되었다.[56]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국내의 정치는 집권욕에 사로잡힌 정권으로 인해 혼란을 거듭했으며, 경제는 원조물자에 의

56) 진덕규, 한배호, 김학준, 한승주, 김대환 외(1981),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pp.506~516 참조.

존하고 인플레에 빠져 있었다.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가 발단이 되어, 젊은 지식인들은 반독재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일어섰다. 교포북송을 다룬 작품으로 「해를 부른다」가 있고, 전후 정치를 소재로 한 것으로는 「코스모스 부인」, 「초배」, 「정 교수의 休講」 등이 있다.

「해를 부른다」[57]에서 어려운 생활고를 못 이기고 귀향과 북송의 유혹에 빠져 북송선을 타는 재일동포는, 도도한 홍수에 초가 지붕을 타고 떠내려가며 구조 요청하는 사람들로 비유되어 있다. 그리고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는 사나이의 몸부림은, 북송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었다.

> 사나이는 이제 정말 기운이 진했던지 오래오래 엎드려 쉬었다. 다시는 물 속으로 흘러내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나 만으로 온 전신과 힘을 흙 속에 박은 열손가락 끝에 모으고 있는 그 사나이까지는 둑에선 사람들의 바로 발밑 그미터도 채 못되는 거리였다.
>
>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둑에선 사람들이 그저 구경만 할 뿐 그 중의 누구 하나 이 지쳐버린 불쌍한 사나이를 도와 주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었다.
>
> 「해를 부른다」

여기에서는 고통에 처한 북송교포를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무관심을 비판하고 있다.

「코스모스 부인」[58]은 6.25로 남편을 잃고, 4.19로 외딸마저 잃은 김마담의 소망과 비애, 그리고 한을 고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생애를 그렸다. 자유를 위해 큰 시련을 당했어도 자유가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희생과 사랑만이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초배」[59]는 4.19의거 10년 뒤, 초배된 1960년 1월 1일부터의 신문을 통해 다시 보며,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의 가르침을 일깨운 작품이다. 자유당의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민주정치 실현을 외치는 전국의 학생, 시민의 데모에, 집권자들이 발포하여 111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내었다. 이 작품의 갈등은 민주정치의 이상과, 협잡과 술수로 왜곡된 정치 현실간의 격차에서 비롯되었다.

---

57) 이범선(1963), 「해를 부른다」, 『피해자』, 일지사, 1963.
58) 이범선(1964), 「코스모스 부인」, 『문예춘추』 1964.10월호.
59) 이범선(1975), 「초배」, 『두메의 어벙이』, 홍성사, 1982.

또한 집권자의 개인주의와 이를 방관하는 서민들의 개인주의의 결합이 국가 정의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 "벌써가 뭐야. 겨우 10여 년밖에 안되었지." (중략)
> "그런데 모두들 그날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거던." (중략)
> "글쎄. 뭐라고 해야 할까, 잊은 건 아닌데.....그러니까 말하자면.....그래 봤자 별거 없지 않으냐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닐까?"
> "그런지도 모르지. 어쨌든 요즈음은 국민의 생각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
>
> 「초배」

그리고 불과 10여 년 후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그 교훈에 대한 망각, 개인주의로 인한 부패의 악순환 등이 갈등을 야기시켰다.

「정 교수의 휴강」[60]에서 정치 사회에 대한 비판은 간접적으로 '꿈'이라는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고발되었는데, 현실의 갈등이 꿈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정 교수의 꿈을 통하여 당시의 현실을 유추해 보면, '세단을 모는 문둥이'는 속은 부패되었으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위정자이고, '목에 걸린 밥주걱'은 생계 때문에 양심을 죽인 지식인의 상황이며, '코끼리 이빨한 개'는 매서운 감시자이다. 그리고 역한 냄새에 고층건물이 삐걱대고 네온사인이 빛나도 길은 어둠뿐인 꿈은 부패 일색의 암담한 현실을 상징한다. 고장난 신호등은, 눈치껏 사는 것이 현명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세태를 나타낸 것이다. 작가는 이와 같은 세태가 야기된 것은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불신과 이기심은 부조리한 정치 현실을 만들고, 타락한 정치는 소시민 개인의 소망을 배제하며, 모순된 사회 현실의 요인이 된다. 이 작품들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으므로, 작가는 話者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긍정적인 인물들은 부정적인 인물들보다도 知的으로는 優位에 있으나 부조리한 정치에 희생양이 된다.

(2) 경제와 사회

60) 이범선(1972), 「정 교수의 휴강」, 『한국단편문학전집(11)』, 정음사, 1974.

戰後에도 기업가들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하지 않고 오직 권력의 주변에만 모여 많은 융자를 끌어내고 원조물자를 배당받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그 결과로 야기된 악성 인플레와 부정과 부패는 1960년대에 와서는 더욱 심했다. 이같은 생활고와 분배의 불평등, 부정 부패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소시민들의 환경이 크게 '소외'[61]되어서 정서적으로 감싸이지도 못하므로 혼란과 갈등이 증대된다. 작가가 소시민들의 애환을 다룬 것은 '소시민적 삶에 대한 동질감'[62]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휴머니즘과 서민적 인정미를 풍긴다. 그리고 부정과 거짓과 불신을 미워하고 솔직한 성품인 그는 예민한 분별력과 감수성으로 느낀 현실의 부정과 타락에 대한 '울분'[63]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그의 관심은 갈등 표출과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도 있었다.

다음에는 인물들이 사회 상황 및 집단과의 갈등에서 보이는 대응 자세나 방법을 對立, 同調, 諷刺, 克服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A. 對立

대립이란 갈등을 야기시킨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항의하고 울분을 토로함으로써 적의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선의의 인물들이 완전히 그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모순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험적 모색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경제, 사회적인 갈등 중에서 타락한 사회와의 대립적 국면을 보인 작품 들은 「사망보류」를 비롯하여, 「미꾸라지」, 「물」, 「일요일」, 「배나무 주인」, 「고장난 문」, 「월광곡」, 「쓸쓸한 이야기」 등이 있다.

---

61) 사람은 동물존재를 특정짓는 자연과의 기초적 결합을 떠나버렸고, 그와 동시에 이성과 상상력을 가짐으로써 그는 자신의 고독과 소외 및 무력함과 무지 등을 의식하고 있다. 프롬(1941), 전게서, p.266.

62) 이범선 자신도 월남 후, 극심한 생활고에 끼니를 잇지 못하여 식은 땀을 흘린 적이 많았으며 안암동에서 종로2가까지 전차표가 없어서 걷기도 했다고 한다. 차정자(1983), 전게서, p.5.

63) 소외된 인간이 고통과 갈등을 겪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고난을 불행한 재난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을 소외시킨 그 힘과 맞겨루는 대신에 다만 노스탈지어나 슬픈 감정, 또는 불평이나 공허한 힘으로서만 반응한다. 프리츠 파펜하임, 「현대인의 소외」, 황문수 역(1978), 문예출판사, p.10.

「사망보류」[64]는 전후의 비인간화와 인정 상실의 세태에 대립하면서 '패배'[65]해 가는 과정을 가혹하고 냉정하게 보여 주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죽음도 숨기는 적극성은 갈등의 강렬성을 증거하고 있는데, 인간존엄성의 붕괴와, 인정이 이해 타산에 밀리는 생존경쟁의 세태를 전했다. 피난열차에서의 에피소드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험 속으로 떨어뜨리는 현실을 묘사했다. 피난열차에서 떠밀린 자의 보따리가 연명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이라면, 그 때문에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 "당신이 가 타우. 십만 환. 이십 오일엔 꼭 가야 해."
> "약." (중략)
> "내가 이런 줄 알면 아마 안 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 철은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려다 말고 머리를 뒤로 젖혀 약을 입 안에 털어 넣었다.
> 스무 나흗날 밤이었다. 철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대량으로 각혈을 하였다. 금시 얼굴이 파래졌다. 치명적이었다.
>
> 「사망보류」

박선생의 병가를 내자마자 후임교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과, 죽은 박선생 가족의 불행을 외면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는 사람들의 이기심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철은 최소한 곗돈 탈 날까지는 살아야겠다고 했으나, 절망적 상황을 맞고서 자신의 사망 사실을 숨기라고 한다. 이것은 병자가 자신의 병을 숨기고, 악화되더라도 휴식보다 출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각박한 현실과 가난의 비애, 그리고 박약한 인간애의 고발이다.

「오발탄」에서 영호의 갈등은, 법률과 양심을 지키면 가난을 면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법률 시행의 비정당성으로 인하여 준법자들의 삶이 곤궁해진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선'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리화하였다. 그러나 '인정선'은 넘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작가가 법률보다 인정을 더 本然的이고 상위의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64) 이범선(1957), 「사망보류」, 『학마을 사람들』, 마당문고사, 1986.
65) "무력한 선의의 인간을 집요하게 간섭하고 억압하고 또 학대하는 사회 주변의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결하므로 그 선의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패배와 파멸밖에는 할 수 없었다." 박수윤(1990), 전게서, p.30.

것이다. 한편, 철호의 갈등은 분단과 전쟁과 부조리한 사회에서 상실당해 온 생존경쟁의 체험에서 말미암았다. 그의 양심이 그에게 많은 짐을 지웠고,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했으며, 누이 동생이 양공주가 되는 것에서 울분을 더했다. 그는 삶을 위해 애썼으나 그 결과 아내가 죽고, 해결할 수 없는 데도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當爲感밖에 남지 않게 되자 방황한다.

>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아비 구실, 형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야 한다.'
>
> 「오발탄」

이에 대해 현길언은 '철호의 갈등과 절망은 바로 노모의 절망적 외침과 겹쳐지면서 전후 소시민의 갈등과 절망적 상황을 그려냈다.'[66]고 한다. 이와 같이 작중인물들은 현실에 대응하는 각기 다른 자세들을 보여 준다.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현실과 대결하여 극복할 수 없어서 윤리를 버리고 양공주가 된 명숙, 실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미친 어머니, 전쟁과 가난에 失語症과 영양실조로 죽는 아내 등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후의 고충을 총체적으로 고발하였다.

「미꾸라지」[67]에서는 도의와 양심을 지키는 가난한 교사가,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는 양심도 버려야 한다는 아내와 갈등한다. 더욱이 密輸 부자에게 울분을 느끼며, 자신을 '추탕감'이라고 자조한다. 민은 추탕집에서 보았던 엉켜도는 미꾸라지를 통해서 본능적 생존욕이나 이기심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를 연상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포함한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불신과 이기심을 고발한 작품들로는 「물」, 「일요일」, 「배나무 주인」, 「고장난 문」 등이 있다. 「물」[68]은 불신 사회의 타락한 상술에 대한 울화를 참으면서, 사 먹는 물마저 가짜이겠냐며 '허드랫물'인 줄 모르고 마신다. 이와 같은 속임은 인간 관계가 一回的일 때, 또는 각박한 삶에서 생존을 위한 必要惡이라고 합리화될 수 있을 때에 일상 가운데 확산되는 것이다.

---

66) 현길언(1990), **前揭書**, p.156 참고.
67) 이범선(1958), 「미꾸라지」,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68) 이범선(1959), 「물」, 『오발탄』, 신흥출판사, 1959.

「일요일」[69]은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한 父子에 대한 선량한 약자의 분노와 자조를 그렸다. 그리고 '옷통 벗은 애'와 '캡 쓴 애'와의 갈등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가 힘에 의해 강탈되는 현실을 보이고 있다. 「배나무 주인」[70]에서 항상 열려 있는 나무 대문은 나눔의 공간이고, 대조적으로 칼날처럼 번득거리는 알미늄 문은 排他的인 공간이다. 이 대조를 통해서, 인정과 신뢰가 사라져 가고, 몰인정과 이기적인 물질만을 내세우는 '흉한' 세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비판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배를 따 자시오'라는 정성들인 글을 내걸었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노인을 허탈하게 하였다. 변해 버린 인심과 불신감은 노인으로 하여금 무서운 세상이라고 느끼게 한 갈등 요인이다. 「고장난 문」[71]에서는, 부자유한 상황에서의 갈등 심리와, 수사관의 올바르지 못한 조서에 대한 만덕의 갈등이 있다. 화가는 문이 고장나서 갇히게 되자 속박을 느끼며, 점점 그 흥분과 분노를 증폭시켜가다가 질식사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수사관은 의사의 질식사라는 검안서를 무시하고, 無事安逸한 일처리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만덕에게 조서를 강요했다.

교육계의 비리를 고발한 작품으로는 「월광곡」과 「쓸쓸한 이야기」가 있다. 「월광곡」[72]에서 노교사는 K읍 청년 지도자가 되려는 소망을 못 이루고, 그 소망을 대신 이루기를 기대했던 아들이 전사하자 비통해 한다. 다음에는 교장을 꿈꾸어 보지만 '혈연'이라는 구조적 비리에 의해 좌절되고, 停年을 맞는다. 「쓸쓸한 이야기」[73]에서 노교수의 갈등은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 체험에서 빚어졌다. 60세의 김교수는 평생을 학문에 힘쓰고, 교수 생활과 학생과의 만남에서 보람을 찾는 인물이다. 그가 데모 학생과 경찰에 신뢰받고 규율에 엄격하여 존경받았어도 보직과장조차 못한 것은 경영자에게 아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도박 같은 처세와 맞서 성실을 견지했으나 초라한 정년을 맞는다.

이 작품들은 갈등을 통해서, 당시의 양심의 옹호자가 부당하게 소외되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9) 이범선(1955), 「일요일」, 『현대문학』, 1955.12월호.
70) 이범선(1975), 「배나무 주인」, 『문학사상』, 1975.10월호.
71) 이범선(1977), 「고장난 문」, 『학마을 사람들』, 마당문고사, 1990.
72) 이범선(1962), 「월광곡」, 『피해자』, 일지사, 1963.
73) 이범선(1973), 「쓸쓸한 이야기」, 『신동아』, 1973.2월호.

초라한 노년이나 생활고를 맞아야만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위해 발버둥치는 서민들의 비애를 加重시키는 부조리와 모순을 고발하였다.

B. 同調

타락한 현실에서 개인의 자동인형화는 일반적인 개인의 무력감과 불안정성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동조는 자아의 상실과 자아를 거짓된 자아로 대체하는 것이었으므로 또 다른 문제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적응 결과가 현실의 긍정적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동조는 갈등 요인을 드러내고, 사회의 모순을 역설적으로 고발하는 데에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몸 전체로」와 「문화주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실 대응 방식에 관심을 두었다.

「몸 전체로」[74]의 영어 교사는 사람에 대한 무서움, 혼란뿐인 세태, 매정한 생존 경쟁, 이기주의 등을 6.25때 깨달았다고 했다. 그 전쟁 체험은, 정부를 믿었다가 피난 못한 것, 부산 피난 때 수제비 깡통을 쏟은 야맹증인 딸애를 후려갈긴 죄책감, 딸이 백일해를 앓자 쫓겨나 大寒 밤 창고 마당에 쭈그리고 앉은 일, 誣告로 경찰서에서 맞고, 사흘만에 풀려났을 때 딸이 죽은 것 등이다. 이런 체험으로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진 그는, 아편 밀매자인 박씨와 동업하고, 還都令 이전에 서울로 숨어들어 불법 소유, 사기, 도박 등으로 致富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시 말하면 환도령이 내리기 전에 숨어 올라와 샀으니 반 불법소유란 거지요. 재미있읍니다. 남으로 도강해서 생명을 불법소유한 사람. 북으로 도강해서 집을 불법소유한 사람. 사기. 도박." 「몸 전체로」

이것은 역설적으로 법을 따라서는 곤경이나 죽음밖에 없다는 불신감의 표출이다. 주인공의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존중을 포함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

"골프. 참 이상하더군요. 유희에서는 그 까다로운 루울을 곧잘 지키면서 정작 사회생활에서는 루울을 안 지키거든요. 슬쩍슬쩍 남이 보지 않을 때 손으로 그 공을

74) 이범선(1958), 「몸 전체로」, 『오발탄』, 삼중당, 1979.

집어다 구멍에 밀어넣는단 말입니다."

「몸 전체로」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극도의 비참함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심성마저도 이제까지 혐오해 왔던 타락한 모습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이 곤혹스런 사회에 대한 인내심과 공격성을 키우려 한다.

「문화주택」[75]은 이기적인 집장사를 통해 상업문화에 상처받는 동심을 그렸으며, 인정 회복을 강조했다. 부모의 이기적 商術에 대하여 동철은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생긴 무궁화 뿌리의 상처는 동심과 인정의 상처이다. 또한 동철 부모의 집장사를 통해 산업화 사회에서 삶의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와의 갈등을 드러내었다.

이상에서 두드러진 것은, 작가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인정과 신뢰의 바탕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향수어린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공통점은 부유층 인물들은 대체로 부도덕하고, 순박한 인물들은 가난하다는 것과,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後者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타락한 사회에 동조하게 되는 이유는 전란의 각박한 인심과 혼란 체험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부조리하고 타락된 사회가 개선될 희망이 없다면, 살아남을 길은 타락한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므로 그 致富 과정은 역설적으로 사회 비판이 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 諷刺

풍자나 희화화는 적대감의 본래 근원에 대한 반항 표현의 환치된 수단이 된다. 이 경우에 갈등의 관계는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나 풍자는 적어도 문제를 제기하고 일시적으로 그 억압된 갈등을 해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등장인물을 戲畵化[76]한 작품으로는 「박사님」, 「청대문집 개」가 있다. 「박

75) 이범선(1968), 「문화주택」, 『한국단편문학전집(11)』, 정음사, 1974.

76) 희화화(Caricature)란 인물의 외모나 성격 혹은 사건 자체를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대상을 풍자하는 기법이다..... 아울러 희화화에서 인물의 외양이나 성격을 의도적으로 우습게 만드는 묘사는 등장인물의 몰인정과 포악한 심성, 히스테리와 이중성격 등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결국 대상 자체를 풍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pp.482~484 참조.

사님」[77]에서 김달호는 戰前에 엉터리 치과 의사, 투전판 건달, 부로커 등을 하다가 피난하여 공장에 취직했다. 그러던 중 두 노인이 찾아와 김박사라 부르는 바람에 중역으로 승진되었다. 가짜 박사 행세하던 김은 파업 직공들의 노조결의문을 읽고는, 법을 모르는 자신이 오히려 법에 따라 요구하는 직공들을 무식하다고 비난했다가 쫓겨났다.

> "그럼, 벌써부터 그만 둔다는 게 그러니 사장 보기가 딱해서 그저 그럭저럭 좀 도와 주었지. 그 무식한 직공들을."
> "공장에선 좀 곤난하겠군요. 박사님이 그만 두셔서."
> "뭐 별로. 아마 외국손님들이 오면 접대하기에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요즈음 젊은이들에도 영어를 곧잘 지껄이는 자들이 있으니까 뭐."
>
> 「박사님」

그는 쫓겨나서도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자신의 결함을 위장하려 하지만 생활은 다시 곤궁해진다. 「청대문집 개」[78]에서 넝마주이였던 김억대는 개로 인해 卒富가 되어, 대졸 여성과 결혼하고 유지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는 허영적일 뿐만 아니라, 채석장 사고 때도 사망자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그보다 개에 물린 지서주임에게 사과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돈에 의한 조건부 결혼과 억대가 물욕 때문에 매정히 이웃을 쫓아내는 인정 상실과 이기심 등이 갈등을 빚었다.

풍자는 소외된 개인이 기득권층에게 정당성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고 모순을 비판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諷刺가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형식적 특성은 세계에 대한 二元的인--현실과 이상이라는--통찰력을 투사해 내려는 욕구에서부터 유도된다.'[79] 이 견해는 풍자가 갈등을 표출하는 한 과정임을 알려준다. 이범선 작품에서 풍자의 주체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하여 예지적인 면에서는 앞서 있으나 물질적인 면에서는 열등하다. 뿐만 아니라 그 주동 인물이 패배하거나 절망함으로써 고통스런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작품들로는 「도장지」, 「너는 적격자다」, 「나는 그 동물의 이름을 모른다」, 「미친 녀석」, 「두메의 어벙이」 등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77) 이범선(1960), 「박사님」, 『피해자』, 일지사, 1963.
78) 이범선(1970), 「청대문집 개」, 『학마을 사람들』, 마당문고사, 1990.
79) 김윤식 편저(1976),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1991, p.294.

「徒長枝」[80]의 뜻은 '열매도 못 맺고 뻗기만 하는 가지'인데, 곧 말만 무성하고 참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 땅의 정치, 사회를 풍자한 것이다. 군작업복은 이 땅의 비극적 이데올로기 대립을 암시한다. 치안조차 엉망이었던 시대에 자물쇠는 필수적이라 하겠는데, 지킬 재물조차 없는 빈궁한 이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해서 양심을 잠가야 한다는 것을 풍자한다. 도장지는 양심의 적이고, 양심은 그것에 분노하고, 그 끊는 분노가 그 자신을 자물쇠로 잠그게 했다는 것이다. 타락한 문명과 이기적 상업주의, 실천없는 공중도덕을 비판하고, 미래 불확실성과 생활고를 지적했다. 현실 대응 태도면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미친 녀석」[81]이 있다. 여기에서 '녀석'의 복장은 불완전한 일제 청산의 현실을 보여 준다. 녀석은 군중심리, 구태의연한 신문, 타락한 性과 출세욕을 비판하면서, 불만을 마개로 막고 자물쇠를 달았다. 그 갈등의 결과 이기적 구조 속에 소외되고, 정상적 방법으로는 자신의 의식을 주체할 수 없었으므로 죽음으로써 현실을 폭로했다.

「너는 적격자다」[82]는 공고문에 사장 이름 대신 실수로 자기 이름을 써서 파면된 김세득을 통해서, 자기를 철저히 버려야 살 수 있는 현실을 풍자했다. 그리고 학벌 위주의 진급에 대한 비판과, 그 실수 때문에 파면시키는 사장의 편협한 권위의식 고발이 있다. 「나는 그 동물의 이름을 모른다」[83]에서 소시민인 생물 교사는 그 나이에 이르도록 집을 마련하지 못하여 교외인 미아리 종점으로 이사하고 그마저 나가게 되어 갈등을 겪는다. 住居 불안정으로 인한 그의 번민은 밀림 속 연약한 동물이 겪는 비애를 연상하고서는 허탈감을 느끼고 자조한다.

寓話인 「두메의 어벙이」[84]는 산업화의 부작용 비판과 귀향의지를 표현했다. 강원도 두메에 살던 참새들이 '병쟁이' 참새를 따라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온다. 그런데 '어벙이'는 고향 친구, 부모가 그리워 갈등하던 끝에 고향으로 날다가 눈 덮인 산에서 의식을 잃는다. '어벙이'의 갈등을 통해 보인

80) 이범선(1963), 「도장지」, 『피해자』, 일지사, 1963.
81) 이범선(1981), 「미친 녀석」, 『두메의 어벙이』, 홍성사, 1982.
82) 이범선(1963), 「너는 적격자다」, 『피해자』, 일지사, 1963.
83) 이범선(1964), 「나는 그 동물의 이름을 모른다」, 『한국단편문학전집(11)』, 정음사, 1974.
84) 이범선(1980), 「두메의 어벙이」, 『두메의 어벙이』, 홍성사, 1982.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서울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에 의한 離農現狀이다. 서울에 이주한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은, 서울내기들과 동화하는 '짤짤이'型, 후회하면서도 현실을 수용하는 '왕치'型이거나, 고향과 인정이 그리워 시골로 향하는 '어벙이'型이다. 둘째, 서울에서 온 참새를 병쟁이라 하고, 서울은 헌데더뎅이로 표현되면서 병약성과 이기심을 드러내었다. 셋째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귀향의 어려움이다. 여기에서 겨울은 냉혹한 현실을 상징한다. 그리고 귀향하던 어벙이의 죽음으로써 행복의 조건이 외형적인 안락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애정과 소박함임을 알게 하고, 그 회복 과정이 悲壯함을 깨닫게 했다.

이처럼 풍자적인 작품에서는 자아를 지키려는 소망이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과, 자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로서의 '자물쇠 모티프'가 있다. 한편, 자조적 결말로써 자아의 상실을 고통스럽게 그리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갈등은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는 구조였기에 풍자가 효과적으로 구사되었다.

D. 克服

이범선 소설의 인물들은 모두 소외를 경험했거나 '소외된 상태'[85]에 있는 인물들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드물게 소외를 극복하고 화해를 지향해 가는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갈등 대상에 직접적으로 대결하며, 왜곡되었던 상황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이범선의 다른 사회 고발 작품과는 달리, 갈등하는 인물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재자가 존재하며, 이를 계기로 인물이 긍정적으로 회복된다.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회복을 이끄는 정신적 基底가 인정주의와 '기독교 신앙'[86]에서 비롯된다. 선한 인물들이 양심을 버리고 타락한 현실과 타협하였다가 인정과 화해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는 「냉혈동물」을 비롯하여 「이웃」, 「화환」 등이 있다.

「냉혈동물」[87]의 김은 전쟁 때, 피난할 차 시간 약속의 배신, 피난지에서

85) 이오네스코(Ionesco)에 의하면, 이 소외는 "목적 없이 자신의 종교적, 형이상학적 또 초월적 뿌리가 잘린 상실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 앨런 스윈지우드(1972), 『문학의 사회학』, 정혜선 역(1984), 한길사, p.236.

86) '독실한 신자였던 이범선은 증조부에게 어린 시절부터 그 영향을 받았다.' 이범선 대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문학사상』, 1974. 2월호. p.217.

87) 이범선(1959), 「냉혈동물」, 『오발탄』, 신흥출판사, 1959.

회사 동료에게 쫓겨난 일, 지겟짐을 나르며 모욕당한 체험 등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 후, 돈에 집착하여 불법 군수품 도매, 아편 장사, 일본 밀수, 환도령 이전의 집장사로 致富한다. 불신과 이기주의로 변화된 그는, 남의 불행을 외면하고 차갑게 대하려 애썼다.

'불쌍하다. 나는 그네를 도와 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내가 저 지경이 되었을 때 어떻던가? 도와 주어야 한다.' (중략)
'그렇다. 불쌍하다. 그런데 네가 그 지경이 되었을 때 남들은 어떻게 대하던?
「냉혈동물」

그러나 자신의 내면마저 완전히 냉혈일 수 없었기에 갈등하고, 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구두닦이 노인에 의해 인정을 회복한다.

"하 거 그만두고 가시란데 그걸 뭐 기어히 바꾸어다까지 주는거요 옹졸한 양반도 다 있지."
마디가 선 손으로 십환짜리를 받아서 아무렇게나 거기 못통에 던져 넣은 노인은 다시 송곳으로 구두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김철은 무언가 콱 자기의 가슴을 밀어젖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
「냉혈동물」

「이웃」[88]에서 신 공장장네는 유 과장의 이사를 거들어 줄 만큼 친절했으나, 이웃 유 과장댁과 틀어지면서 불만과 보복으로 변했다. 신 공장장은 '널바자'로 상징되는 얄팍한 개인주의와 우월의식에 맞서서, '널바자'를 비꼼으로써 간접적으로 유 과장을 나무란다. 반목으로 치닫던 중에, 유 과장네 火災에서 신 공장장은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불을 끄기에 온힘을 다한다. 이를 계기로 갈등이 해소되고, 이 때 생긴 신 공장장의 발목 '상처'[89]는 서로를 친밀하게 했다. 「화환」[90]은 性을 유희하고, 불편하면 산아 제한이란 미명 아래 편리하게 낙태시키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비록 약한 산모를 위해서 일망정 낙태를 원했던 검사가 자신의 죄를 자책하고 부성애를 깨달아 良心告白한다.

88) 이범선(1956), 「이웃」, 『현대문학』 1956.5월호.
89) '상처는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고, 피흘림은 용서를, 용서는 화해를 가져온다.' - 고은혜(1992), "이범선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51~52.
90) 이범선(1965), 「화환」, 『현대문학』 1965.1월호.

교사들의 애정과 헌신을 다룬 작품에 「사직고개」, 「소년」이 있다. 「사직고개」[91]에서는 산골 교사가 分校를 벗어나야 한다는 유혹을 버리고,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분교에 남는다. 여선생이 훈에게, 분교에 있는 것은 感傷이라며 읍으로 전근하라는데, 훈은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성실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갈등을 겪는다. 훈이 분교에 남는 결정을 하는 중재요인들로는, 더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과 탄실의 순수한 사랑이 있다.

> "그저 저는 제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따름이죠. 그리고 마을 애들, 그야말로 불쌍한 애들입니다. 그들에게야말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여기 있어 주어야 합니다."
>
> 「사직고개」

한편, 「소년」[92]에서는, 술주정꾼이며 疑妻症인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해체된 학생에게 애정을 쏟는 교사를 그렸다.

그리고 순진한 어린 아이들을 등장시켜 전후 사회의 치유와 신뢰를 다룬 작품으로 「별 셋」, 「가을비」, 「태자 까치」 등이 있다. 「별 셋」[93]은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눈은 타락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다. 처음 얘기에서, 큰 부정에도 태연한 세상에서 작은 투정마저 후회스러운 어린애의 눈을 통해 '천국'[94]을 보여 준다. 두 번째 얘기의 여자애는 전란으로 인한 비극을 안고서도 미소지을 수 있는 해맑은 심성의 소유자다. 세 번째 얘기의 어린놈의 순진함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있기에 아름답다. 약장수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궤변이나 거짓말도 주저하지 않는 불신의 세상에서, 신뢰하며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대비시켰다. 「가을비」[95]에서 마을 아낙네들은 허기와 외로움을 못 견디는 동래를 동정하지만 그를 데려다 키울 살림의 여유가 없어서 안타까워 한다. 그리고 동래를 거지애로 보는 것과는 달리 어린 녀석은 친구로 보는데, 이것은 이 비극이 동료의식과 소박한 인정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태자 까치」[96]에서 까치를 처음 날려보내는

---

91) 이범선(1959), "사직고개", 『오발탄』, 신흥출판사, 단기4292.
92) 이범선(1959), 「소년」, 『신문예』, 1959. 4월호.
93) 이범선(1958), 「별 셋」, 『현대문학』 1958. 8월호.
94)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6:20.
95) 이범선(1966), 「가을비」, 『한국단편문학전집(11)』, 정음사, 1974.

장면은 '신뢰 대 불신'이라는 갈등을 보인다. 까치를 키우는 자신의 정성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종은, 까치의 獸性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식구들과 견해를 달리하였다. 그리고 그 까치가 길러 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애정의 힘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작가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불행에 처한 이들에게는 같은 아픔과 분노를 느낀다. 그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함으로써 작가의 사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작품들은 작가의 생활 체험과 밀접한 관련 안에서 소재를 모았기에 전후의 생활고, 상실된 정의, 부조리[97] 등의 순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들은 일관되게 정당성이나 양심이 거듭하여 좌절되는 것을 보여 주고, 삶의 허무성과 사회의 황폐성을 폭로했다. 이 갈등의 요인은 전후의 가난과 인정 상실, 생명 경시 등이고, 그 갈등을 극복할 힘은 인정 회복과 신뢰와 사랑이라고 했다.

2) 명분과 실재

종교와 윤리, 제도의 명분은 화해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종교와 윤리.제도를 수용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자의적 차이점들은 집단성 혹은 관습성을 띠면서 보이지 않는 구속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아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인습적 定罪意識이 맞물려 인간답게 살려는 개인을 갈등하게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화해와 안정을 도모하는 명분과, 불화와 소외를 야기시키는 실재와의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교

이 장에서 다뤄지는 작품들은,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사람다움과 사랑이 앞서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종교적 규범이나 형식이 소중히 여겨져야

96) 이범선(1969), 「태자 까치」, 『두메의 어벙이』, 홍성사, 1982.

97) Camus는 그의 "Le Mythe de Sisyphe(1942)"에서....목적과 질서를 명백히 할 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는 세계 내에서 이 양자(목적과 질서)를 발견해 내려는 인간의 결심으로부터 발생되는 긴장 상태가 바로 부조리라고 말하였다.- 김윤식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1991, p.85.

하는가를 묻고 있다. 다음을 보면 인본주의적 종교관을 알 수 있다.

> "..... 30이 넘어서 세례까지 받았지만 종교는 어느 것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생으로의 지향을 전제로 하는 한, 인간이 난 대로 양심대로 살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종교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98]

「피해자」와 「삼계일심」은 종교적 의식이나 규율로 인해 죽음이나 이별에 순응해야 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이 인물들은 '집단의 기준으로부터의 분리'[99], 즉 사회적 고립과 가치상의 고립을 겪고 **逸脫**하거나 **懺悔滅切**한다. 따라서 이들의 일탈행위는 사회 규범과 현실 간의, 혹은 그것들의 조화 결여의 결과[100]로서, 적응 행동에 있어서 '도피주의'[101]와 '**憤慨**'[102]의 특성을 갖는다.

「피해자」[103]는 사랑 없는 신앙, 인간보다 죄를 따지는 한국교회의 피해자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104]을 깨우치려 했다. 이 작품은 종교의 양면성과 행복 없는 가정을 주갈등으로 삼았다. 요한의 갈등 요인은 기독교적 신앙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에서 진정한 사랑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신앙관의 차이는 그의 독백을 통해 밝혀진다. 그의 신앙관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되나, 아버지 신앙관은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아내의 신앙관은 원죄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그러기에 나는 생각하였다. 인간이란, 나의 아버지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아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죄 속에 던져진 죄인도 아니고, 실은 무한히 너그럽고 크신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
> 「피해자」

98) 이범선 대담취재(1974), 전게서, p.217.
99) 정문길(1978), 『소외론연구』, 문학과 지성사, p.212.
100) J.H. 터너(1978), 『사회학 이론의 구조』, 김진균 외 역(1989), 한길사, p.106.
101) 도피주의는 용인되는 수단을 상실했거나 그것에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와 함께 정당하지 못한 수단의 사용을 극히 꺼리는 데서 결과한 것이다. 상게서, p.110.
102) 분개의 경우, 인물들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한다는 목적은 수용되고 제도화된 수단이 부정된다. - 정문길(1978), 전게서, p.212 참조.
103) 이범선(1986), 「피해자」, 『한국 현대문학전집(17)』, 삼성출판사, 1986.
104) 작가는 "내세에 치우쳐 현세를 희생시키는 것이 기독교 정신은 아니"라는 생각을 이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 이범선 대담취재(1974), 전게서, p.217 참고.

아버지나 아내의 공통점은, 인간보다 교회를 優位에 놓고 있다는 것과, 사랑과 구원의 실천보다는 죄를 밝히며 萎縮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요한은 남을 헐뜯고 외형만 꾸미는 교인들과,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의리와 가문을 중시하는 부모의 결혼관과 순수한 사랑을 좇는 요한과 명숙의 결혼관이 갈등을 빚었다. 이와 같은 갈등 구조는 뚜렷한 대립성을 갖는 서로 다른 신앙관, 즉 명분과 실재의 차이 때문에 야기되었다. 그 결과 진정한 자신의 사랑을 추구하던 명숙이 失意에 빠져 자살하고, 요한은 자신과 한국교회를 비판한다.

> "그녀는 죽었읍니다. (중략) 그렇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그녀를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란 말입니다. 당신들 한국 교회의 목사, 장로, 그리고 말 많은 교인들이란 말입니다."
>
> 「피해자」

이 작품은 誤導된 종교로 말미암아 상실된 自我를 찾고자 하는 동기와, 그리고 '속죄양 모티프'가 결합되어서 교인들의 자각을 촉구하였다.

「삼계일심」[105]에서는 불교 명분적인 修道와 실재적인 인연이 대립되었다. 진아는 수경 스님이 자신과의 인연으로 인하여 참회멸절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그녀는 수경 스님에게 사랑을 느끼면서도, 그를 떠나고자 한다. 물질적 삶과 예배적 삶을 대립시킨 「地神」[106]에서 명분은 예배적 삶이고 실재는 물질적 빈궁이다. 빈민촌 판자집 철거민들에게 삶의 수단은 공장 취업이었는데, 교회와 취직의 兩者擇一 때문에 갈등하고, 끝내는 정신적 支柱인 예배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불도저는 기계문명을 상징하고, 교회는 정신적 삶을 상징한다면, 물질적 삶이 정신적 삶보다 우위에 있는 세태를 암시한다. 「천당 간 사나이」[107]에서 장로는 저승길에서 '여윈 이'의 흉악한 범행을 알고는 그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이 없는 기도나 來世의 福樂에만 집착하는 祈福主義的 信仰은 참신앙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위의 세 작품들을 보면, 억압된 자아 문제를 제기했고, 왜곡된 신앙에 대

105) 이범선(1973), 「삼계일심」, 『문학사상』, 1973.10월호.
106) 이범선(1971), 「지신」, 『분수령』, 정음사, 1974.
107) 이범선(1968), 「천당간 사나이」, 『현대문학』, 1968. 11월호.

한 자각과 충격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종교가 화해된 세계의 이상을 제시해 준다는 명분과 달리 허상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고발한다. 신앙의 보편적 목적은 인간의 삶을 더 진실하게 하고,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하며, 안정 희구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범선은 이 생각을 전하기 위해 갈등과 희생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작가적 소망을 피력하였다. 순수한 사랑이나 참된 자아가 없으며, 내면의 기쁨마저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에서 순수한 사랑도 修道者에게는 죄라고 하고 고통스러워한 것도 이것과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

(2) 윤리, 제도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인간 사회의 화해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경험적 지혜의 산물이다. 또한 윤리는 인간다움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사회 유지를 위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윤리도 나름대로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윤리의 劍을 들었는가에 따른 상대성, 그리고 상황윤리적 적용을 따른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작품은, 「백이숙제」, 「환원」, 「비둘기」 등이다.

「백이숙제」[108]는 충절이라는 명분으로 周에 항의하고자 입산해서 겪는 고통과 그 삶의 실재를 보여 주었다. '백이'는 '발'이 충을 버리고 민심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허상임을 보여 줌으로써 擧事 名分을 비난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백성으로서 제왕을 버릴 수 없고, 수양산도 주의 산인 까닭에 숙명적인 인생의 한계로 괴로워한다. 숙제의 갈등은 명분과 실재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양자택일은 죽은 왕조를 위한 忠이냐, 강간 위험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위한 愛이냐 하는 것과, 그리고 道理이냐 형제의 정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환원」은 상황윤리 문제를, 「명인」은 신분적 사랑을 제재로 했다. 「환원」[109]에서는 悲運 속에서 결혼한 고아 부부가 동복남매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비난하는 사회와 신에게 항거하려고 입산하였다. 이것은 도덕적 명분

108) 이범선(1958), 「백이숙제」,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109) 이범선(1959), 「환원」, 『오발탄』, 신흥출판사, 1959.

과 실재 운명과의 乖離에서 빚어진 갈등이다. 그 후, 산 속에서 딸을 낳은 아내는 죽고 딸이 성숙하자, 노인은 딸의 장래가 걱정되어 둘 사이에 아들을 가졌다. 추락한 김소위는 산골을 벗어나 귀대하려 하나, 그들은 생욕 본능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윤리적인 길을 위해 그들은 김소위를 붙들려고 한다. 노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입산한 것이나, 김소위가 살기 위해 산을 나갈 길을 찾는 것은 대조적이지만, 둘 다 인간의 공존을 指向하고 존재론적 갈등을 겪었다.

「명인」[110]에서 신노인은 구장에게 아내를 잃고, 구장네 아들 명근를 사랑하던 외딸은 수모를 당한다. 백정의 신분을 벗었다는 자기 나름의 명분과, 여전히 그를 백정으로 대하는 실재의 횡포가 갈등하게 했는데, 강간이라는 非行과 비관 자살이 맞물려 충격을 더했다.

> (전생에 무슨 원수를 진 것이 아니구야!)
> 이불 속에서 자꾸자꾸 흐느껴 우는 딸의 머리말에 호롱불 켜놓고, 밤새도록 애끊은 담배만 피우는 신 노인은, 십 칠년 전 아내의 시체를 물 속에서 건져내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중략)
> 뒷말로는 박 구장에게 몸을 빼앗기고 그 길로 물으로 달려갔다고도 하였다.
>
> 「명인」

피해자이면서도 체념하는 백정의 삶과, 백정 아닌 백정의 한계도 신분적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강간한 박구장이 사죄는커녕 오히려 행세하는 것은 비윤리성의 고발이다. 한편, 딸이 간청하자 신노인은 구장네 잔치를 위해 소를 잡아 주는 행동에서 부성애를 보인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실상과는 다른 명분만을 집착하여 갈등을 빚는다. 「환원」과 「백이숙제」의 입산 모티프는 인간과 왕조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로 그 의미는 퇴색된다. 「백이숙제」의 경우에는 대상 없는, 인생론적인 갈등이 되고, 「환원」의 경우는 모르고 한 근친결혼에 대한 도덕적이고 존재론적인 갈등의 결과로 은둔과 근친상간과 비극적 자살이라는 결말을 맞는다. 이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갈등을 겪는 것과 대상 없는 싸움의 주체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정도와 대상의 차이가 있지만, 「비둘기」[111]는 선한 주인이 되기를 거부한 자기중심적 소유의 타락한 모습을

110) 이범선(1965), 「명인」, 『분수령』, 정음사, 1974.

보이고, 「신분증」[112]은 사회 제도의 명분과 빗나가기 쉬운 실상과의 얄팍한 관계를 戱畵化하여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내면적 갈등

전쟁의 비인간성과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상황의 체험은, 과거의 안정된 자아와 전통적 가치관을 혼란시켰으며, 자아의 상실과 성적 타락상을 초래하였다. 이범선의 후기 작품들의 갈등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상실된 자아의 회복과 인간성 옹호를 동기로 하고 있다. 내면적 갈등은 개인적, 내적이고 비현실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특정한 결과 달성이 명확하지 않다. 다음에는 이범선 작품의 내면적 갈등을 '肉的 사랑과 靈的 사랑', '性愛와 純愛'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肉的 사랑과 靈的 사랑

(1) 異性 간의 사랑

사랑의 선택은 행복의 필수적 요건인데, 작중인물들의 운명이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처럼, 사랑의 선택도 대체로 타의적이며 환경적인 결과였다. 그래서 내면적 갈등을 겪게 되고 회의와 절망감에 빠지거나 체념해 버린다. 「황혼의 기도」가 그 대표작이며, 「임종의 소리」, 「선녀제비」, 「돌무늬」, 「날아간 나비」 등이 같은 양상을 보인다.

「황혼의 기도」[113]는 사랑의 선택에 있어서의 갈등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숙은 박을 사랑하여 약혼했지만, 김을 만나고서는 그의 더 열정적인 사랑에 흔들린다.

> 나에게 약혼자 박이 있대서가 아니었읍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해도 저는 도저히 김철호의 그 뜨거운 사랑, 밑으로 밑으로 스며 도도히 흘러 오는 사랑의 물줄기를 받아 사랑으로 다시 그에게로 돌릴 수 있는 열정이 자기에게는 없음을

111) 이범선(1968), 「비들기」, 『크리스찬문학』 1968.
112) 이범선(1967), 「신분증」, 『신동아』, 1967.7월호.
113) 이범선(1959), 「황혼의 기도」, 『오발탄』, 신흥출판사, 1959.

안타깝게 느끼고 있었읍니다.

「황혼의 기도」

박은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때문에 평생을 소록도에서 홀몸으로 살며 못 이룬 사랑에 심장이 시려한다. 작가는 철호를 통해서 사랑의 갈등을 〈肉對靈〉이라고 표현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구하는, 투쟁과도 같은 것'이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부합되지 않은 사랑을 다룬 것으로는 「임종의 소리」, 「선녀제비」가 있다. 「임종의 소리」[114]에서 남편만을 사랑해 온 아내는, 남편이 임종 순간에 자기 아닌 '순희'만을 사랑했었다는 말에서 배신감과 절망감, 가증한 위선과 현기증과 불쾌함을 느끼면서 망연자실한다. 「선녀제비」[115]는 선녀제비의 전설을 매개로 하여, 다방 여인의 과거를 들려 주고 있는 작품이다. 喪妻한 의사제비가 선녀제비를 범해 억지 혼인하여 갈등을 빚었다. 그 후, 번민하던 그녀는, 상처받고 떠났던 총각제비가 잠든 곳에 찾아가 울다가 선녀제비가 되었다고 하여 타락한 사랑에 의한 피해를 그렸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다룬 「돌무늬」[116]는 65세의 봉순이 죽음 직전에 한평생을 회상으로 서술하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은 상상으로 보였다. 봉순의 미운 얼굴로 인한 열등적 컴플렉스, 숙명적인 삶에 대한 무력감, 그녀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간 정신적 상실감과 강간, 남편의 이중 결혼에 대한 소외감 등 순탄하지 않은 체험들은 슬픔과 도덕적 분노를 느끼게 했다. 「날아간 나비」[117]는 물질에 의한 계약 결혼을 비판하고 있다. 명수는 인숙에 대한 그리움이 사랑이 되고, 그녀를 만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그녀가 醜物이지만 돈 많은 사람과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약혼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였다. 그녀의 갈등은 효성과 물질의 굴절된 결합에서 빚어졌는데, 이를 통해서 현대의 物神思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상의 만남을 소재로 한 것으로는 「애기 중의 사랑」, 「코스모스」, 「유모

114) 이범선(1966), 「임종의 소리」, 『현대문학』, 1966.10월호.
115) 이범선(1969), 「선녀제비」, 『여성동아』, 1969.3월호.
116) 이범선(1962), 「돌무늬」, 『오발탄』, 삼중당, 1979.
117) 이범선(1959), 「날아간 나비」, 『오발탄』, 신흥출판사, 1959.

차」가 있다. 「애기 중의 사랑」[118]은 '애기 중'과 '분이' 사이의 맑은 사랑과 슬픈 이별을 내용으로 했다. 외로운 그들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며 아름다운 것이었다. 「코스모스」[119]는 일상 생활의 한 소박한 만남을 그렸는데, 나는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수줍어서 거리를 유지하고, 말도 못 건네고 미소짓는 심리를 묘사했다. 「유모차」[120]는 옛날 순이와 복남이의 정다웠던 시골 생활을 오랜 세월로 잊혀지게 하고 인생무상을 서정적이면서 담담하게 그렸다.

(2) 가족 간의 사랑

이범선은 가족 중심의 인물들을 자주 등장시키고, 그들을 통해 가정의 행복 추구에 관심을 보였다. 가족의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는 「암표」를 비롯하여 「표구된 휴지」, 「하늘엔 흰구름이」, 「죽마지우」, 「아내」 등이 있다.

「암표」[121]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은 물질과 사랑의 양자택일로서, 농부인 아버지는 소가 소중하다고 여겼으나, 어머니는 자식이 소중하다고 했다. 아버지는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소를 팔 수는 없다 했는데, 공부는 농부의 삶에서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여긴 까닭이었다.

"그리고는 그까짓 중학곤 해 멀 할 게냐. 농꾼의 자식이 농사나 짓고, 밥 잘 먹는 게 젤이지. 하긴 글 모르는 신세도 되우 안타깝긴 하더라만....."

「암표」

그러나 군대 간 큰아들이 편지를 쓰지 못한다는 현실에 부딪혀서는 생각의 전환을 맞았다. 암표 같은 편지를 본 아버지의 까닭모를 울화나 어머니의 눈물에서 무지의 한맺힘을 보게 된다. 농촌의 각박한 현실에서 생계 수단을 학비와 맞바꾸는 선택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었기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표구된 휴지」[122]는 돈 벌러 上京한 총각을 사랑하는 시골 부모의 애정어

118) 이범선(1963), 「애기 중의 사랑」, 『피해자』, 일지사, 1963.
119) 이범선(1963), 「코스모스」, 『피해자』, 일지사, 1963.
120) 이범선(1979), 「유모차」, 『현대문학』 1979. 12월호.
121) 이범선(1955), 「암표」, 『정통한국문학대계-손창섭,이범선』, 어문각, 1988.
122) 이범선(1972), 「표구된 휴지」, 『학마을 사람들』, 마당문고사, 1990.

린 편지를 표구하고, 그것을 통해 사라져가는 애정에 대한 향수를 떠올렸다. 휴지 같은 그 편지는 도회지의 지점장과 화가를 감동시켰으므로, '소박한 생활 자체가 훌륭한 예술'[123]이 되었다고 했다. 그 편지에서 어려운 농촌과, 가난을 이겨내려는 진지한 자기 인식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삶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밥믁고배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

「표구된 휴지」

여기에는 농촌의 가난한 현실이 반영되었으며, 부모의 자식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이 돈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였다.

「하늘엔 흰구름이」[124]는 큰딸을 시집보낸 부모의 허탈함을 표현하고 있다. 아버지는 속마음으로 그 딸을 사랑했었고, 어머니는 딸에게 사탕을 사 주기 위해서 은십자가를 파는데, 형식적 신앙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즉마지우」[125]에서 자존심 강한 친구는, 새 기술 이론의 청년기술자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자기의 옛 이론에 문제가 노출되며 좌절케 하자 자살했다. 그 때문에 그의 가족이 나의 가족보다 행복해야 한다는 자기 약속을 팽개친 것이므로 애도보다는 경멸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아내」[126]는 서울의 셋방에서 할머니와 한 방을 쓰는 가난한 신혼부부의 불편한 애정 행위에서 느끼는 소박한 욕망과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서로 소중히 여겼어도 부부간의 貞淑을 강조하는 할머니 때문에 갈등을 빚었으며, 셋방을 따로 마련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제기했다.

요컨대, 肉的인 사랑은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특성을 갖는다. 利己的 사랑에 의한 갈등은 「선녀제비」, 「돌무늬」 등에, 물질적 사랑에 의한 갈등은 「황혼의 기도」, 「날아간 나비」 등에 있다. 그리고 신분적 사랑에 의한 갈등은 「명인」, 「피해자」 등에 나타나 있다. 이들은 모두 비본질적인 사랑에 의해

123) '비예술의 예술' - 김정신(1989), "소박한 사람들의 소박할 수 없는 상처", 『표구된 휴지』, 책세상, p.361.
124) 이범선(1973), 「하늘엔 흰구름이」, 『현대문학』 1973.3월호.
125) 이범선(1969), 「즉마지우」, 『월간문학』 1969.4월호.
126) 이범선(1960), 「아내」, 『현대문학』 1960.5월호.

희생되고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한편, 가난한 가정들의 행복 추구와 그 갈등을 다룬 「암표」와 「하늘엔 흰구름이」는 물질이 자녀 사랑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다.

2) 性愛와 純愛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이어서 해방 후의 혼란상, 전쟁의 체험은 궁핍한 생활상을 초래했고, 부조리한 정치와 경제 등은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했으며, 성의 타락으로 이어졌다. 이범선이 자라 온 기독교적인 환경과 전통적 가치관은 여기에 부딪쳐 놀라움을 겪었으며, 그 원인과 결과를 헤아려 볼 동기를 갖게 되었다. 「불」을 비롯하여 「벌레」, 「혼례기」, 「커다란 꽃송이가」 등은 그 양상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불」[127]에서 폐병 든 한 사장은 그의 건강 때문에 性愛를 거부하는 착한 아내에게 노여워하다가, 그녀에게 부지중에 일을 저지르고 죽이는데 화재가 난다. 그에게 있어서 '불'은 성적인 욕망과 폐병과 파멸이라는 重意를 갖는다. 그는 가난하고 착한 여인을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만 보았으므로 갈등이 야기되었다.

「벌레」[128]에서 필네가 병문안 온 칠규를 끌어안고 욕정을 태우다가, 그에게 불구인 남편을 해치우라고 한 행동에서 필네의 부도덕성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평범한 금슬이 남편의 성불구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은 원죄적 본능을 해명하려는 과정으로 보인다. 「혼례기」[129]는 결혼식장 앞에서 개의 교미를 화제로 삼고서 타락한 성욕의 사회를 비판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과로 辨明해야 했던 것과, 요즘 오히려 조물주에 대하여 본능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대조를 이룬다. 심지어는 출산의 고통마저도 의술로 피해나가는 인간의 음탕함을 비판하고 있다. 「커다란 꽃송이가」[130]는 순박하고 성실하게 그날 그날 벌어 사는 노동자가 우연히 여인의 하체를 본 후에 정신적으로 혼란해지고 충동적으로 강간 살인하는 내용으로 인간의 본능과 성범죄의 문제

127) 이범선(1963), 「불」, 『피해자』, 일지사, 1963.
128) 이범선(1959), 「벌레」, 『오발탄』, 신흥출판사, 1959.
129) 이범선(1966), 「혼례기」, 『현대문학』, 1966.2월호.
130) 이범선(1971), 「커다란 꽃송이가」, 『여성동아』, 1971.11월호.

를 제기하였다.

性心理에서 이성 관계를 바라본 것으로는 「판도라의 후예」, 「네온사인」이 있다. 「판도라의 後裔」[131]의 혜화 선생은 연탄가스에 중독된 채 알몸을 보였던 것 때문에, 홍 선생만 보면 알몸이 되는 환각을 느끼는 휴유증을 앓고 그를 피한다. 점차로 그에 따른 내면적 갈등과 고통도 심화되었는데, 이 갈등은 자신의 내부의 환각 증상과의 갈등이었으므로, 그녀는 후유증의 원인인 홍선생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네온사인」[132]에서 평범한 여인의 수줍음이 없는 투명한 미소를 부정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나, 그 입술에 사랑의 흥분이 없다고 訣別하게 된 것은 대조적인 관점을 보여 준다. 이 두 관점이 모두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상의 작품들을 볼 때, 극빈자, 노동자, 교사, 사장 등의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의 성에 관한 상호역학적인 삶을 다루었다. 이 부류의 작품들은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맞는데, 먼저 정신적인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서 그 결과 죄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타락한 성애를 비판하고, 진정한 사랑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제시한 것이다. 작가는 자연주의적 기법으로 인간의 본능과 환경결정론에 따라 사건을 다루면서, 그런 현상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고발하는 사실주의의 경향을 뚜렷이 하고 있다. 즉, 한 인물의 자주적 의식보다는 성범죄 不感症의 사회와 성적 본능을 우위에 두고 그 속에서 타락해 가는 모습을 고발한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31) 이범선(1978), 「판도라의 후예」, 『문학사상』 1978. 9월호.
132) 이범선(1964), 「네온사인」, 『현대문학』, 1964.7월호.

Ⅵ. 갈등 구조의 형상화 방법

이범선의 본격적인 창작 활동은 36세 되던 해인 1955년에 「암표」로 등단하여 1981년 「미친 녀석」을 발표하기까지 단편 77편, 중편 2편, 장편 15편 등과 다수의 수필, 평론, 저작 등을 남겼다. 그의 활동 전기라고 할 수 있는 1968년까지는 전쟁 체험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이 기간에 쓰여진 56편 작품 중에서 21편이 분단과 전쟁 체험을 다루고 있으며, 8편이 전쟁 체험을 회상을 통해, 에피소드로 삽입하고 있다. 1969년 이후의 작품은 21편인데 「고국」에서 도미하게 된 연유로 잠깐 피난을 다루었을 뿐, 주로 개인적이고 가정적 체험이 다뤄진 것이 전기와는 대조적이다.[133]

그는 전쟁과 부조리한 현실의 체험에서 몰인정과 비도덕성과 불신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을 교양있는 소시민의 관점에서 작품화하였다. 이 과제들을 단편소설이라는 양식으로 다루기 위하여, 압축적 제시를 위한 상징, '긴장감 있게 주제를 전하기 위한 구성'[134], 감동을 위한 희생 모티프와 공감을 조성하기 위한 제재의 선별 및 집중화 등이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기법들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주제에 따라서 기법의 요소들과 그 효과도 조금씩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갈등 구조를 몇 가지의 주제 유형과 관련시켜 형상화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33) 이범선 단편소설의 소재별 분류

구분	기 간	작품	역사, 전쟁 문제	사회, 종교 문제	가정, 개인 문제
전기	(1955~1968)	56편	21편	18편	17편
후기	(1969~1981)	21편	2편	8편	10편

134) 이범선 소설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서사적 구성:(도입)-과거-현재:「수심가」, 「살모사」, 「월광곡」, 「분수령」, 「불」 「갈매기」, 「더퍼리 전서방」, 「달팽이」, 「삼계일심」 「백이숙제」, 「이웃」, 「청대문집 개」, 「고장난 문」
2) 회상적 구성:현재-과거-현재:「오발탄」, 「학마을 사람들」, 「그의 유작」, 「고국」 「돌무늬」, 「냉혈동물」, 「정 교수의 휴강」, 「219장」 「박사님」, 「사망보류」, 「판도라의 후예」, 「피해자」
3) 혼합적 구성:현재-과거-현재-과거-.....현재:「초배」, 「몸 전체로」, 「선녀제비」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순된 현실에 대한 갈등은 일반적으로 대립적 구조를 취한다. 여기에서 그레마스의 '이항 대립 구조'[135]는 이와 같은 주제를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주제 유형은 앞 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낙원회귀에의 향수', '양심의 고발과 분노', '희생과 구원의 변증법' 등으로 분류한다.

1. 낙원회귀에의 향수

前期에는 전쟁과 실향을 주된 갈등 동기로 다루고 있으며, 사회의 타락 원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전쟁 체험을 단편적으로 삽입하고 있다.

「더퍼리 전서방」은 서울 수복 직전에 한 시민의 희생 정신을 다루었으며, 「토정비결」은 실향의 안타까움을, 「수심가」는 분단으로 인한 월남, 「살모사」는 공산당의 반인륜성을 소재로 하였다. 「사망보류」는 피난열차에서 남을 밀쳐낸 비정한 현장을 묘사하였고, 「몸전체로」는 피난의 비참한 체험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 밖에 피난 체험을 다룬 작품으로는, 피난 체험으로 몰인정한 인간이 되는 「냉혈동물」, 피난시 죽은 아이를 雪葬하고 그 환각에 시달리는 「二一九章」 등이 있다. 전후의 신세대가 등장한 작품들은, 전쟁에 국군인 아버지를 잃고도 맑게 빛나는 아이를 그린 「별 셋」, 피난간 섬에서 신세계를 동경하는 「갈매기」, 고아의 비애를 그린 「가을비」 등이다. 전상자의 울분과 실향을 소재로 한 「오발탄」, 교포북송을 다룬 「해를 부른다」 등은 전쟁과 분단의 후유증을 다루었다. 이산의 아픔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단신 피난하여 약혼녀를 그리워하는 「환상」, 가족을 그리워하는 「달팽이」 등이 있다. 「월광곡」에서는 戰死한 아들로 인한 상실감을 그렸으며, 「분수령」은 동족 상잔의 비애를, 「자살당한 개」는 상이군인의 번민과 좌절을 묘사했다. 한편, 「상흔의 내력」은 공산주의자의 전향을 다루었으며, 「그의 유작」에서 전쟁은 한 지식인의 비극적 생애를 그렸다. 「단풍」과 「학마을 사람들」은 전쟁이 미친 영향과 통일의 열망을,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쟁과 고아원 비리,

135) 김준오 외(1992), 『구조주의』, 고려원, p.92 참조.

몸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 작품들은 **戰後文學**의 특성을 모범적으로 갖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을 조명하면서, 그들이 받은 외형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새긴 것들이다. 여기에서는 '수난사 속에서의 서민의 위치', '상징을 통한 수난의식 확대', 그리고 '낙원회귀'의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 수난사에서 서민들은 어떤 존재였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이범선 소설의 인물들은 대부분 역사나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순박한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전쟁을 참혹한 숙명으로만 알고 휩쓸린 피해자였다.

> 난데없이 누런 옷을 입은 사람들 · 인민군 이 북쪽 영을 넘어 마을로 들어왔을 때 ..... 마을 사람들은 학이 제 새끼를 물어버린 뜻을 알았다.
>
> 「학마을 사람들」

남과 북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 빌미는 생존 본능, 혈연이나 지연, 혹은 변화에 순응한 때문이었지 사상적인 이해의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기에 「분수령」의 나는 '사상 운위하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순진'한 학생으로서 '의용군에 끌려가면서도 이기는 편에 소속되었다는 안정감'을 느낀다. 반동인물들의 사상 선택도 치밀한 모색의 결과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순응하고 보복 심리가 더해진 결과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그야말로 어처구니없이 38선이 무너지고, 공산군이 홍수처럼 남한으로 밀고 내려왔다. 그러자 최 장손이 살고 있던 마을에도 소위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민청이 생겼다. 머슴의 아들 최 장손이 민청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 「상흔의 내력」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체험적으로 공산주의와는 이질감을 여러 군데 드러내면서 자유로운 세계의 선택이 합당함을 뒷받침하였다. 「분수령」에서 북으로 가는 창식에게 구장네 처녀가 '바보'라고 하며 운 것이라든가, 작중인물들 중에 월남인이 많은 것도 그 예이다. 「상흔의 내력」의 최장손은 사상의 전향을 보이는 드문 예인데, 그 원인은 공산군 장교의 만행에 대한 환멸에 있었다.

둘째로, 이와 같은 수난기의 역사 체험을 민족적인 관점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상징[136]을 구사함으로써 주제의식을 확대하고자 했다.

「학마을 사람들」에서 학은 평화, 民族性을 상징하므로 학을 기다림은 역사의 회복, 통일에의 염원을 나타내고, 학의 죽음은 전통적 가치의 파괴와 평화로운 삶의 파탄을 뜻한다. 타버린 학나무는 역사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고, 애송나무는 역사의 재건과 회복 의지를 상징한다. 「그의 유작」에서 그림의 어둡고 비오는 듯한 색채는 일제치하의 암울한 시기와 6.25를 상징한다. 그리고 한 모퉁이의 빨간 점은 희망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며 믿음을 보여 준다. 한편, 말뚝에 매여 줄이 감겨서 부자유스러운 송아지는 수난의 역사를 운명처럼 여기며 자유를 잃고 사는 소박한 인간을 상징한다. 「단풍」의 여인은 열강들의 침략 혹은 원조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상징하고, 아들은 전후의 현실과 통일의 숙원을 지닌 신세대를 대표한다. 전후의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서 사격장은 전후의 낙원을 잃은 소외자들의 고난을, 「갈매기」의 갈매기는 자유와 동경을 상징한다. 4.19를 다룬 「코스모스 부인」에서, 사막 같은 어항은 갇혀 있는 세상을 뜻하고, 「해를 부른다」의 수렁은 분단이 낳은 북송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발탄」의 원시인은 문명적인 인정을 상실하고 본능적인 생존의지만 남은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

끝으로, 낙원회귀를 지향하는 의지가 있다. 전쟁은 소박하고 평화로운 낙원을 황폐화시켰고, 역사의 피해자인 서민들은 생존과 귀향에 投入하게 되었다. 이범선의 작품은 낙원을 직접적,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 그의 작품에서 낙원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가의 소년기의 추억과 맞물려 있으며, 現實苦에 처한 인물들의 향수 속에 나타나 있다.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 보면, 그 곳은 가정적이고 인정이 살아 있으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다.

> '학마을, 얼마나 아름답고 포근한 마을이었노.'
> 이장 영감은 어느새 황소 같은 더벅머리 총각으로 돌아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톳불을 돌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 옛날 학마을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한 쌍의 학이 찾아오곤 하였었다.

136) Kant는 문학적 상징이란 '논리적 표출에 대한 대체물로서의 합리적 개념을 제공하여 주는, 객체가 지니는 속성이며, 이에 대해 정신을 개방시켜서 정신에 활력을 불러 일으킴에 의해서만이, 유사한 표현 분야 내로의 조망이 그 조망 범위 이상으로 확장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 김윤식 편(1991), 『문학과 비평용어사전』, 일지사, p.85.

「학마을 사람들」

섬 안은 그대로 한 집안이다. 그러기 이느 집안에든지 잔치가 있거나 또는 상사가 생기면 이렇게 밤새도록 전등이 들어오는 것이다.

「갈매기」

작가가 생각하는 낙원은 환상적이거나 먼 곳에 있지 않고, 신뢰와 인정을 회복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안는 마음 속에 있다. 「갈매기」에서 훈의 그리움은 낙원을 찾는 동경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목사, 둥래, 복순은 사격장을 떠나 낙원을 찾아간다. 낙원을 찾으면서도 정작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낙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냉혈동물」에서 만날 수 있다. 「배나무 주인」에서는 불신이 소박한 지상의 낙원을 버리는 것이라고 警戒한다.

'참 좋습니다. 곧 낙원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남이 보기에는 초라할 지 모르나 내게는 낙원입니다. 이 배만해도 그렇죠. 날마다 마음껏 따 먹고도 그대로 남아나거던요.'
'그래서 대문에 그렇게 써 붙이셨군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참 알 수 없더군요. 아무도 배를 먹으러 들어오질 않아요.'

「배나무 주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의 소설에서 이러한 낙원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6.25에서 비롯된다.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에서 비롯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나, 사랑의 실패에 대한 보복감정에서 공산당과 야합하거나, 비교적 냉대받던 계층이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의 상실이 큰 이유였다. 그것은 한 인간을 「몸 전체로」의 '석고상', 「냉혈동물」의 철, 「사망보류」의 파렴치한 만주 청년 등으로 변화시켰으며, 「오발탄」의 어머니, 「二一九章」의 민, 「달팽이」의 윤노인 등을 정신적인 파탄으로 몰고 가기까지 하였다.

"〈우리〉, 참 좋아하고 또 많이 쓰던 말입니다. 우리! 그런데 피난 중에 저는 그만 그 말을 잃어버렸읍니다. 폭탄의 힘은 참 위대하더군요. 저는 돌아온 이 서울 거리에서 〈우리〉 대신 폐허 위에 수많은 〈나〉를 발견했습니다."

「몸전체로」

>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후로 단 하루도 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지내오던 그날, 6.25사변으로 바로 발 밑에 빤히 내려다보이는 용산 일대가 폭격으로 지옥처럼 무너져 나가던 날 끝내 철호는 어머니를 잃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 「큰애야, 이젠 정말 가자. 데것 봐라. 담이 홀싹 무너지는데, 삼팔선의 담이 데렇게 무너지는데, 야.」
> 그때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었다.
>
> 「오발탄」

그의 낙원에 대한 동경은 때로는 울분과 환멸을, 때로는 고통을 자아내는 수난의 역사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발견된다. 수난으로 말미암아 낙원은 상실되었지만 곳곳에서 그 희망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의 유작」, 「해를 부른다」, 「둥트는 하늘 밑에서」, 「밤에 핀 해바라기」 등의 작품은 6.25의 고통을 내용으로 하면서, 해를 희망의 상징적 모습으로 보인 것들이다. 그리고 「상흔의 내력」에서 '피'는 이해와 사랑을, 「더퍼리 전서방」에서는 헌신적 희생을 상징한다. 자유로운 자아와 평화가 위협당하고 희생이 있더라도 역사는 바른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낙관적인 역사관이 그로 하여금 작품의 결말을 상실 가운데에 둘 수 없게 하였다. 「학마을 사람들」의 애송나무, 「더퍼리 전서방」의 햇살과 태극기, 「초배」의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 「단풍」의 아이의 붉은 사주, 「달팽이」의 아들의 가죽 신발 등은 상징성이 짙은 소재들로서 역사의 질곡을 이겨내야 하는 당위성과 의지를 담고 있다.

요컨대, 외부의 힘에 의한 낙원의 상실은 개인의 생존과 자아를 위협했다. 주인공에게 있어서 이것은 삶의 본질적인 갈등을 야기하였고 자신은 희생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존과 자아의 소중함과 그 회복 의지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결말부의 상징을 통하여 낙원 회복의 전망과 확신을 제시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평화와 자아의 추구를 動機로 하는 이항 대립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인정형 인물들의 평화와 자아의 추구는 압제 및 전쟁과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재자는 압제 및 전쟁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재자는 주동 인물과 정서적으로 일치하는 분신이나 상징물의 희생으로 나타나거나, 그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독자의 동기를 증대시켰다. 그러므로 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작품들의 특성은 자아와 평화의 회복을 희생을 통하여 촉구한 데에 있다.

2. 양심의 고발과 분노

이범선의 소설에서, 양심적이고 도의적인 약자는 대부분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희생당하고 있다. 이 노여움은 부도덕과 몰염치, 부조리와 기만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자가 오히려 가난과 受侮를 당하는 불공평한 정치, 사회와 경제에 말미암았다. 이 때에 나약한 자신에 대한 환멸과 타락한 사회에 대한 울분은 自己愛에서 비롯된다. 다음에는 '생존 의지', '닫힘 모티프', '정서적 等價物'을 차례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생존을 위한 양심의 노여움을 보여 주는 작품들로는, 「오발탄」, 「미꾸라지」, 「몸 전체로」, 「사망보류」, 「냉혈동물」 등이 있다. 일제치하나 6.25의 경우는 본능적인 행위인 생존 자체이었는데 비하여, 사회 고발의 작품들에서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기에 이들 작품군에서는 두 가지의 가치관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인물들이 그 중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녔으며,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현실 우위의 사회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희생되는가를 그려내려고 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어쨌든 죽는 순간까지 악을 쓰고 살아야잖우. 아니요. 죽고도 더 살아야 할 형편인 걸요.」
>
> 「사망보류」

> "그렇지만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아직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
> "그래요. 사람이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물고 뜯고 하는 마당에서 살자면, 생명만이라도 유지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는지 알 것 같애요. 허허."
> 영호는 눈물이 글썽하니 귄 눈을 천장을 향해 쳐들며 자기 자신을 비웃듯이 허허 하고 웃었다.
>
> 「오발탄」

작가는 양심이 무기력함일 수 없으며, 오히려 치열한 자기 극복의 소산임

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던 사람이 타락한 방법으로 부를 얻었으나 거기에 감춰진 슬픔이 있다고 함으로써 양심이 패배할 수 없음을 보였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나라니오?"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오발탄」

이 밖에도 「몸 전체로」에서 영어 선생은 아들에게 격렬한 권투를 가르치면서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냉혈동물」의 김철도 스스로 냉정해지자고 다짐했어도 인정스런 노인 앞에서 인정을 회복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판단을, 물리적으로는 열세에 있으나 지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인물들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공감을 확대하고자 했으므로, 교사, 직장인, 記者 등을 인물로 설정하였다.[137]

그리고 종교와의 갈등도 진정한 자아의 실현을 파탄하게 했고, 그러한 변질된 종교에 대한 노여움을 느끼게 한다. 종교의 핵심이나 삶의 要諦도 사랑인데, 종교와 삶이 조화된 삶을 이루지 못하고 대립한다. 그것은 본질적인 신앙과 죄의식적인 신앙과의 대립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당시 한국교회의 외형적 신앙 생활을 비판하였다.

둘째, 닫힘 모티프이다. 그 노여움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을 선택하게 했다. 하나는 보복적 행동으로서, 타락한 삶의 방식으로 부를 얻되 인정과 양심을 버리는 것인데, 「냉혈동물」의 김철, 「몸 전체로」의 영어 선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물질적인 상승이 도덕적인 타락과 비례하므로 인정과 도덕은 폐쇄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패배와 절망으로 닫힌 결말인데, 「사망보류」, 「물」, 「백이숙제」, 「환원」 등에 있다. 그리고 그 노여움을 감추고 살기 위하여 자물통으로 마음을 잠그고 살아가는 인물들을 다룬 것으로는 「미친 녀석」, 「도장지」가

137)이범선 단편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의 직업별 분포

교사	교수	검사	기자	의사	직장인	학생	목회	상인	노동	농민	기타	계
18	2	2	3	3	9	5	2	4	10	5	14	77

있다. 또, 작가는 어두운 현실을 보여 주기 위하여 '닫힌 문'을 사용하였는데, 「배나무 주인」의 닫힌 '사슴문'은 불신을, 「고장난 문」에 나오는 문은 자유의 구속을, 그리고 「몸 전체로」와 「냉혈동물」, 「상흔의 내력」의 '닫힌 문'은 몰인정을 의미한다.

셋째, 작중인물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인공과 심리적 정황을 같이한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함께 등장시켜서 자신의 울분이나 피해의식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그 때의 울분을 자신뿐만 아니라 심리적 등가물에게 부가함으로써 강자에 대한 불만과 약자로서의 환멸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자살당한 개」는 전장에서 다리 다친 영철이 다리 불구인 개를 운명공동체로 여기고, 개를 통해서 자신의 비극을 연상한다. 「일요일」은 메뚜기를 빼앗겨 울고 있는 소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분을 느낀다. 「나는 그 동물의 이름을 모른다」에서는 멸종 위기의 밀림 속 동물을 같은 처지로 이해하며, 「미꾸라지」에서는 자신을 '추탕감'이라고 자조했다. 「지신」에서 목사 가족은 파묻히는 십자가로, 「쓸쓸한 이야기」의 김 교수는 초라한 한옥집으로, 「배나무 주인」의 노인은 열린 대문으로, 「문화주택」의 동철은 뿌리를 다친 무궁화로 각각 비유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상 체험의 일부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는 **代喩法的 技巧**도 사용되었다. 「나는 그 동물의 이름을 모른다」에서 버스 안의 풍경은 사회의 **階層構造**를, 「일요일」의 목욕탕에서 겪은 일과 아이들의 싸움은 이기주의와 약육강식의 현실을 보여 준다. 「쓸쓸한 이야기」에서 카드놀이는 투기적 인생관이 만연한 세태를 지적했으며, 「두메의 어벙이」에서 자리 다툼은 생존경쟁의 세태를 의미하였다. 이 밖에도 「미친 녀석」에서 부화뇌동하는 군중과 제 손으로 훈장 달기, 「문화주택」의 전쟁놀이, 「별 셋」의 약장수, 「이웃」의 울타리 등도 부분적인 화제로써 당시의 만연했던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不條理**한 현실에 대한 노여움은 때로는 그릇된 명분에 대하여 갈등하고 항거하도록 하였으나 불행히도 그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백이숙제」의 대상도 없고 승산도 없는 싸움, 「환원」의 고립과 죽음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초월하여 갈등이 객관화되었기에 더욱 강렬'[138]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요컨대, 작가가 추구한 것은 자아의 회복, 화해, 사랑 등인데, 각박한 현실과 부조리에 갈등을 빚고 있다. 그는 부조리한 현실의 원인을 전쟁의 각박한 체험에 있다고 하고서, 과거의 인정있고 화해로운 모습과 대조시켰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인정, 화해, 신뢰 등과 이기심, 불신, 몰인정 등이 대립하는 이항 대립 구조가 된다. 여기에서 중재자는 삶의 조건에 있어서 주인공보다 열등하나 오히려 타락한 인물보다 도덕적인 우위에 있으며, 때로는 인정을 일깨우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는 요건이 외형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면적인 인정과 신뢰와 사랑이라고 했으며, 순수하고 사랑이 넘치는 인물과 허세와 기만에 찬 인물들을 대조시켜 성찰을 촉구했다.

3. 희생과 구원의 변증법

(1) 사랑

전후의 부조리나 비참한 삶의 조건들도 얼마쯤 가리워지자 작가는 비로소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삶의 질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행복의 추구'[139]이고, 그것과 밀접한 상관 관계에 있는 것은 사랑의 선택이었다. 그것은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때로는 사랑이 없는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사랑의 결여를 보여 주는 경우에도 역설적으로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묻고 그 사랑의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에는 사랑이 있는 공간, '靈과 肉'의 사랑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랑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인간 관계를 아름답게 변화시켰다. 「상흔의 來歷」은 이해와 사랑으로 원수를 구출하고, 「二一九章」의 민은 고통스런 自虐的 幻覺症에서 찬송에 의지하여 안정을 얻는다. 「별 셋」은 순수한 사랑으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직고개」의 교사인 훈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골 분교에 남는다. 「코스모스 부인」의 전쟁 미망인은 4.19로 딸을 잃은 후, 고아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한을 사랑으로 승화시킨다. 「살

138) J.H.터너(1978), 전게서, 한길사, 1989, p.193.

139) 이범선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하기 전에 영면했다. - 대담취재, "욕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동서문화』, 1982. 2월호, p.14.

모사」의 궁씨는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을 강간한 원한을 신앙으로 달래고, 반목하던 「이웃」의 두 가정은 화재 때 신 공장장의 헌신적 도움으로 화해한다. 「갈매기」의 낙원은 이웃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배나무 주인」의 노인은 손녀딸을 다치게 한 '죄'를 용서한다.

> 길가에서 놀던 어린애를 자전거로 스쳐 상처를 내었으니 부형이 같이 병원으로 가서 치료비를 물어 달라는 것이었다. (중략)
> 나는 죄인이 되어 대문을 들어섰다. (중략)
> "할아버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철없는 제 자식놈이 그만....."
> 나는 그렇게 사과부터 하였다.
> "괜찮아요. 얼굴에 상처가 좀 난 모양이지만 어린애의 살이니까 쉬 나을 것이오. 아무 염려 마시오. 그만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되려 미안하게 됐소이다. 요즈음 애들이란 그 어떻게나 따지길 좋아하는지 원."
>
> 「배나무 주인」

자기만의 우상에 빠져 남의 잘못을 밝히고 배상받으려는 세상에 이처럼 용서한다는 것은 현실을 향한 적극적인 화해의 행동이다. 「태자까치」에서 상대에 대한 사랑은 신뢰를 낳는다는 사고를 보여 주었으며, 「가을비」에서는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렸다.

그리고 생활이 외롭고 어려운 이들은 사랑하면서 설레임과 행복감을 느낀다. 남녀 간의 사랑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 주는 것으로는 「날아간 나비」, 「애기 중의 사랑」이 있다.

> 매일 아침 저녁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어느덧 명수가 직장에 나가는 유일한 보람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기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아궁으로 기어들어 가는 것 같은 근무날이 즐거웠고, 도리어 비번이 되어 쉬는 날이 어쩐지 허전해서 견딜 수 없었다.
>
> 「날아간 나비」

다음으로, 이범선은 인간은 영적이면서 육적인 존재라고 보았으므로 그 갈등도 '靈의 사랑과 肉의 사랑'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는 「황혼의 기도」를 비롯하여 「돌무늬」, 「벌레」, 「불」, 「명인」, 「선녀제비」, 「피해자」 등이 포함된다. 兩者가 조화를 이루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문제 삼고서

그 원인을 부도덕이나 자기기만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갈등을 보여 주기 위하여 대조적 인물들을 설정했으며, 주인공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타락한 사랑의 피해자가 된다.

「황혼의 기도」는 '靈對肉'의 갈등 속에서 영의 사랑을 추구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여인의 고백이다. 한편, 참된 사랑이 없는 관계를 이야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사랑의 소중함을 전했다. 「돌무늬」의 여인은 헌신적으로 섬겨온 남편에게 소외되고, 그 남편은 서울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다. 「벌레」의 여인은 성적 욕구불만 때문에 하반신 불구가 된 남편을 해칠 생각을 한다. 「불」에서는 유부남인 사장이 성적인 욕망 때문에 젊은 여비서에게 접근하여 돈으로 환심을 사고 살림을 차린 뒤, 폐병 악화와 그녀의 젊음에 대한 질투와 병적인 성욕으로 파멸한다. 「명인」에서는 박구장이 여인을 강간하고, 그 딸을 백정의 딸이라며 버리는 파렴치와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의 不感症을 그렸다. 「피해자」의 갈등 요인은 진정한 사랑보다는 상대방의 가문에 따라 결정되는 결혼의 허상과 명분의 굴레였다. 「선녀제비」에서는 의사제비의 이기적 사랑으로 빚어진, 선녀제비와 총각제비의 못 이룬 사랑이 고통과 후회를 남겼다.

「황혼의 기도」, 「명인」, 「돌무늬」, 「선녀제비」 등의 작품들에서 공통된 것은, 결혼이나 부부 생활에서 사랑보다 외형적인 조건이나 본능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윤리관의 혼란에서 비롯되며,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이항 대립 구조로 나타내면, 이상적 사랑과 모순된 사랑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 영적이고 조화된 사랑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외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다. 주동인물은 이기심과 외형적 욕구에 의해 희생당하는데, 그 요인은 타인에게서 비롯되는 경우와 내적인 소극성에서 말미암는 경우가 있었다. 전자에서는 주동인물이 희생되고, 후자에서는 삼각관계에서 소외된 인물이 고통당한다. 이 희생자들은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서 중재자의 희생을 통하여 소극적인 주동인물은 이상적인 사랑을 자각하지만, 그 시점에서 완전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결말을 보이거나 인생무상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본능적이고 타락한 성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과 비유함으로써 비판했다. 「혼례기」에서는 부끄럼 없는 성 표현과 타락

을 개의 교미에 비겼고, 「벌레」에서 필네가 욕정을 불구인 남편에게서 해소 못하고 칠규와 간통하고 남편을 해칠 생각을 하는 것이 벌레를 연상시켰다. 「커다란 꽃송이가」에서는 성애의 장면이, 꽃잎과 꽃술, 꿀을 따던 추억으로 비유되었다. 이것은 性 描寫를 止揚하면서 성의 타락을 문제 삼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 때문일 것이다.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그릇된 사랑, 또는 육의 사랑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상실하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이다. 이 사랑의 피해자들을 통해 작가가 추구한 완전한 사랑의 보기를 보여 주고 있다.

> "여기 같이 일하던 젊은 간호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환자 지대에 있는 어느 나병환자 청년을 사랑했읍니다. 그러나 환자와의 결혼이 허가될 리 없었지요. (중략) 그녀는 의사들 몰래 자기 몸에 나병을 감염시켰던 것입니다. (중략) 어떻습니까. 육대 영(肉對靈). 멋진 사랑 아닙니까." (중략)
> "못 견디게 사랑하면서도 막상 그 사랑을 위하여 투쟁할 줄은 모르던 때, 아니 도리어 사랑을 위한 투쟁은 덮어놓고 치사하게만 여기던 때. 생각하면 어리석고 못나고 어처구니없지요. 얼마나 무서운 자기기만입니까."
>
> 「황혼의 기도」

이처럼 외형적인 사랑은 진실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사고는 그의 소설에서 일관된 것이다. 그리고 성을 충동하는 내적, 외적 조건들을 살피고, 건전한 사회를 위한 윤리의 고양을 촉구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희생의 변증법

이범선의 작중 인물들의 공통점은 비극적 情恨에 있다. 「사망보류」에서의 눈물조차 사치스런 절망감, 「가을비」에서의 온몸이 시린 상념, 그리고 「갈매기」의 낙원을 찾는 나그네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타락한 세계와의 대결이나, 전쟁 체험에서는 물론이고, 일상사 같은 이야기에서조차 웃음이 인색하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것은 이들이 사랑과 평화의 공간을 상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작품에서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인물들의 심리는 울분과 분노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실이 개인보다 현저한 우위에

있는데 개인은 타협을 거부하므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갈등은 무력한 자신에 대하여 자기환멸과 자조를 느끼게 하고, 심화되면 희생 또는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 이 희생은, 이항 대립 구조에서 도출되었듯이, 갈등을 야기시킨 문제들을 외부적으로 폭로하여 깨우치거나 무력한 인간들을 선의로 변화시켰다. 이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내 면 적 표 출	희생적 표출	작 품
울분.분노-->회의 울분.분노-->자조 울분.분노-->자기환멸		「임종의 소리」「쓸쓸한 이야기」 「미꾸라지」「월광곡」「너는 적격자다」 「나는 그 동물의 이름을 모른다」 「일요일」「오발탄」「돌무늬」
울분.분노-->자기환멸-->죽음 울분.분노----------->죽음 울분.분노----------->사랑.헌신		「자살당한 개」「피해자」 「사망보류」「환원」「그의 유작」「선녀제비」 「초배」「미친 녀석」 「코스모스 부인」「더퍼리 전 서방」「명인」 「상흔의 내력」

위의 분류에서 희생은 울분과 분노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자조와 자기환멸은 갈등의 개인적 표출이고, 희생은 한층 강렬한 사회적 표출이다.

작가는 문제 인식을 확산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정서적 수단으로 희생양 모티프를 구사했다. 자신이 고난당할 합당한 이유 없이 운명적으로 수난을 겪는 일련의 과정은 「구약성경」의 '贖罪羊(Pharmakos) 모티프'[140]와 유사하다.

> 그리고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이 의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차는 번제단 앞에 두었던 산 염소의 머리에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모든 불의를 고백하는 것이었다.....나중에 그 사람은 관례적으로 그 염소를 절벽에서 던져 죽게 하였다고 한다.[141]

이것을 이범선 소설의 인물들의 갈등 동기와 과정 및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40) 노드롭 프라이(1957),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1982), 한길사, p.62~64 참조.
141) 아가페성경사전 편찬위원회(1991), 『아가페성경사전』, 아가페출판사, p.897.

〈속죄 의식〉
제비뽑음-->아사셀 결정--->아사셀을 가해, 희생시킴-->속죄와 화목

〈이범선 소설의 피해자〉
운명------>상실과 소외--->고난과 희생---------->화해의 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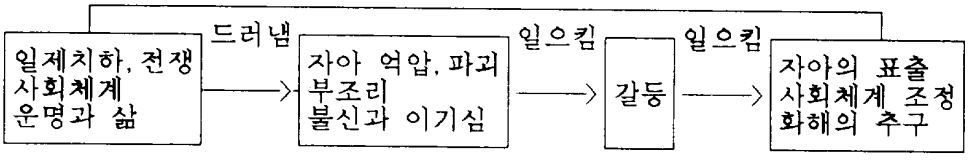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의식은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게 하고 그 속죄함으로써 和睦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었다. 이범선의 소설의 선량한 피해자들은 '아사셀'과 정서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그 희생을 통한 고발의 의도와도 부합된다. 이범선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요즘 같은 세상(1959년 자유당 말기)에서 양심이라는 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물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그 양상을 펼쳐 보임으로써 잔혹한 사회, 부정한 사회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정의와 양심을 보유하고 살아갈 방책이 설정되기를 바랐던 겁니다."[142]

이처럼 작가는 소시민의 삶을 전쟁과 사회 부조리 속에서 피흘림이라고 보았으며, 이런 유형의 인물들에게 애정을 품고, 또 그 희생을 다루었다. 그것으로써 모두에게 치유을 위한 능력과 성의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대개 죽음은 삶과 대립하고 있으며 삶은 구원을 지향한다. 또한 희생은 죽음이면서 구원을 소망한다. 그러므로 희생은 한 인간의 죽음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동기와 방법들을 조성한다. 이것은 희생이 죽음이면서 곧 구원으로 통한다는 변증법적 논리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범선 소설의 갈등에서 一貫된 것은 부정적 현실과의 대립이었고, 사랑과 평화와 안정의 추구였다. 이와 같은 갈등 양상과 기능을 인과 분석에 따라 아래의 표로 나타낼 수 있다.

갈등 양상과 기능의 인과(因果)



142) 이범선 대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문학사상』 1974.2월호. p.215.

그러므로 그는 서민의 애환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묘사하는 作風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자신을 포함한 서민의 삶에 대한 애정은 작가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그 애정은 자아의 억압과 양심의 소외를 고발하고, 치유의 손길을 뻗치게 했다. 이와 같은 현실 고발과 비판, 애정의 실현이 그의 창작의식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결론

전쟁으로 인해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사람들에게 생존 위기의 극한상황은 선한 인간성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으며, 전쟁과 전후 사회의 不條理한 현실은 자아의 상실을 초래했다. 전후의 소설들은 이처럼 왜곡되어 버린 인간존엄성의 高揚과 인간애의 회복, 자아의 재정립, 사회적 아노미의 극복이라는 몫을 감당해야 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버리고 性을 교환의 조건으로 삼았던 상황 윤리로부터의 환원, 이데올로기로 인해 거부되고 훼손되었던 인간애의 회복, 동족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과 타락한 인간 관계를 신뢰와 양심에 따라 합리적인 것으로 되돌리려는 의지는 당연한 작가적 소망이었을 것이다.

이범선의 전쟁을 소재로 한 전기(1955~1968) 작품들은, 거역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운명에 의해 삶의 낙원을 잃고서 고통스러워하는 역사적 갈등이면서 아울러 운명론적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쟁의 충격으로 인한 인간성의 왜곡과 문명의 황폐화는 인간의 내적, 외적인 갈등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이범선 작품의 주요 인물들이 일제치하와 6.25에서 갈등을 빚은 요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것은 인정과 평화의 상실, 자아의 억압, 인명경시와 물신주의 등이다. 인물들의 사상 선택의 동기는 공산주의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순응한 결과였고, 그 결과 공산주의의 냉혹함과 잔인함과 공격성에 동조한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월남하거나 피난한 이들은 실향과 가난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학마을 사람들」과 「그의 유작」에 표현되었듯이 희망의 역사를 기다리는 인내와 의지, 둘째, 「수심가」에서와 같은 인정의 회복, 그리고, 「二一九章」, 「상흔의 내력」에서 보이는 사랑과 용서, 「더퍼리 전서방」과 「살모사」에서처럼 적극적인 대결의식 등을 제시했다.

후기(1969~1981)의 작품들은 일제치하와 전쟁이 야기한 인정 상실, 실향, 부조리 등의 사회적, 인정적 생존을 압박하는 조건들을 문제 삼았으며, 시간

이 흐를수록 더욱 개인적이고 성윤리적인 특성이 더해졌다.

전후의 사회가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며 탐욕적이고, 개인을 소외시키는 현상이 현저해지자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했던 후기 작품들은, '몰염치가 곧 생존의 도구'이고, '비양심이나 부도덕이 곧 致富의 조건'이라는 현실 비판을 보여 준다. 여기에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화해의 추구이다. 이 인물들은 양심을 견지하고, 혹 「냉혈동물」의 김철처럼 양심을 버리고자 했어도 그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하나는 양심에 대하여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거짓과 술수 등의 타락한 방법으로 被奪感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종교, 윤리, 제도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은 정당성에 대한 회의를 제재로 했으므로 '명분과 실재'의 대립 양상을 보였다. 종교적 갈등으로 보자면, 반종교적인 대립이 아니라, 그보다는 동일한 종교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에 있는 의도의 誤謬나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불행을 감싸안지 못하는 도덕과 제도도 명분뿐임을 비판했다. 이와 같은 갈등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대응방식은 「사망보류」 계열의 대립, 「박사님」 계열의 풍자, 「몸 전체로」 계열의 동조, 「냉혈동물」 계열의 극복 등으로 나타났다.

작가는 1970년대에 삶의 여건이 다소 나아지자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소중한 것은 자아의 회복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갈등이 두드러지고,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거리도 객관화되어 있다.

이범선은 갈등을 통해서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고 화해로운 세계를 지향하고자 했다. 그러기에 그는 고통받고 좌절하고 희생되는 선한 인물들과 일치하거나 근접한 거리에서 갈등을 겪고 울분을 터뜨린다. 갈등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극의 집중성과 자기환멸, '닫힘 모티프'나 '희생 모티프'는 그의 문학적 관심을 명확히 한다. 평화와 자아, 화해와 행복을 추구했던 작가는 황폐한 역사와 타락한 현실에 맞서 갈등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갈등은 소설이라는 장르를 택하게 되었다.

이범선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인물들에게서 찾아보면, 첫째,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치나 집단들에 대하여 진정한 거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準據는 양심과 정당성이다. 그런데 갈등의 상대자가 우세하고, 이와

맞서는 주인공은 열악한 조건의 개인이므로 자기환멸을 수반하는데, 이 자기환멸의 장치는 비극을 심화시키고, 필연적으로 체념에 이르게 한다. 또한 대립자와의 갈등을 환치시키는 代償 行爲를 배제함으로써 갈등의 비극적 결말을 첨예화하였다.

둘째, 양심의 편에서 부조리한 현실에서 피해입는 인물들을 교사, 법관, 의사, 학생 등으로 설정하고, 타락하고 황폐한 현실보다 지적인 우위에서 현실의 문제를 분별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갈등의 대상인 물질적, 정치적, 쾌락적 욕구 충족과는 현저히 열세에 있으므로, 상대적 피탈감뿐 아니라,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갈등 과정을 통하여 현실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을 대조시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설득하려 했다.

한편, 사건에 따라 인물의 유형을 달리하고 있는데, 전장 체험을 다룬 작품에서의 주인공은 사려성 있고 용기있는 지휘관이거나, 자유를 강렬히 희구하는 적극적 인물이었다. 고발과 반항의 작품에서 주인공은 양식 있는 지식인이며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 많은 데 비해, 애정을 다룬 작품의 주인공들은 체념형이고 우유부단형이 많았다.

작가가 타락한 사회를 폭로하기 위하여 쓰고 있는 기교는, 현실에 노여워하는 인물들을 마련한 데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순되고 차마 그럴 수 없는 사회악들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그에 대한 노여움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느끼게 했고, 인물이나 사건을 희화적으로 표현했으며, 주제의식의 확대를 위하여 상징과 비유를 구사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희생이 따르지 않는 깨달음은 없다는 사고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선한 인물들은 전쟁과 부조리한 현실에 의하여 고통당했는데, 결국은 이 희생의 거의 모두가 분노, 자아에의 환멸을 거쳐서 절망이나 죽음을 맞고 있다. 그래서 희생으로써 평화와 화해 부재의 현실에 대하여 강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다.

한편 '이항 대립 구조'를 통해서 주제 유형별로 갈등 구조를 분석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밝혀진 특성은, 중재자가 주동 인물 외부에서 오는 각성이 아니라, 주동 인물 자신이나 그 분신의 희생에 의한다는 것이다. 전쟁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평범한 일상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서 주동 인물들은 갈등을 빚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이르지 못한 채 방황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이런 한계에 도식적으로 부딪치고 패배하는 인물들에게 애정을 품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 문제의 치유를 위한 사회적인 각성을 원했기 때문이다. 혼자인 '나'가 아니라 '우리'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눈물겨운 희생들을 통해 곳곳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범선의 작품은 한국적 인정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먼저, 한국적 향수어린 공간을 설정하고, 삶의 구조를 내용 전개와 밀착시켰다.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적인 인정의 세계를 많이 다루었고 그 가치를 높여 얘기한 것도 큰 특징을 이룬다. 또한, 전통적 한을 다루면서 인내와 의지로써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 등이 두드러졌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한도 고향을 각별히 여기는 한국인의 정서적 특성이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더욱 한국적인 작품 세계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박애주의도 인정어린 인간 관계에 집착하게 된 요인이었다. 그는 신앙이 정신적인 깊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 형상화했는데, 그 신앙은 양심, 인정과 동궤에 있었다.

이범선의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의 경우에, 근본적인 갈등 요인들이 더욱 심화되면서 끝맺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들의 참여 동기를 구체적으로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주의적 기술 태도로 극한상황에서의 인간 존재의 고뇌를 그린 것은 실존주의적 작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그를 비판한 점에 있어서는 참여 문학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범선은 복잡다단한 시대를 살아왔던 만큼 그의 작품 경향을 한두 가지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갖추었기에 그의 문학적 계보는 오히려 견실해졌다. 그의 한국적 향수와 인정의 세계는 김동리와 이어진다. 소재면에서, 사회와 정치와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서 그 자의식을 예민하게 추구한 점에서는 같은 시대의 孫昌涉, 徐基源과 유사하지만 2, 3편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작품의 표현 기법면에서 과거의 리얼리즘 소설의 기법을 구사했으므로 오유권, 이호철, 하근찬과 一群을 이루고 있다.

이범선 작품 연보

1.「암표」, (현대문학 1955.4), 36세
2.「일요일」, (현대문학 1955.12)
3.「이웃」, (현대문학 1956.5), 37세
4.「달팽이」, (현대문학 1956.5), 37세
5.「학마을 사람들」, (현대문학 1957.1), 38세
6.「더퍼리 전서방」, 「미꾸라지」, (현대문학 1957.9)
7.「수심가」, (현대문학 1957.11)
8.「토정비결」, (현대문학 1958.1), 39세
9.「사망보류」, (사상계 1958.2)
10.「몸 전체로」, (사상계 1958.5)
11.「피해자」, (세계 1958.7)
12.「백이숙제」, (현대문학 1958.7)
13.「별 셋」, (현대문학 1958.8)
14.「이일구장」, (현대문학 1958.9)
15.「갈매기」, (현대문학 1958.12)
16.「오발탄」, (현대문학 1959.10), 40세
17.「소년」, (신문예 1959.4)
18.「환원」, (사상계 1959.10)
19.「벌레」, (문예 1959.10)
20.「황혼의 기도」, (문예 1959.10)
21.「냉혈동물」, (문예 1959.10)
22.「물」, (『오발탄』, 1969.12.20)
23.「환상」, (『오발탄』, 1969.12.20)
24.「날아간 나비」, (『오발탄』, 1969.12.20)
25.「사직고개」, (『오발탄』, 1969.12.20)
26.「태양은 부른다」, (새벽 1960.3), 41세
27.「아내」, (현대문학 1960.5)
28.「박사님」, (사상계 1960.11)
*1.「동트는 하늘 밑에서」, (장편, 현대문학 1960.10~1960.9)
*2.「역풍」, (장편, 부산일보 1960)연재
29.「월광곡」, (사상계 1962.2), 43세
30.「돌무늬」, (사상계 1962 증간호)
31.「너는 적격자다」, (신세계 1962.3)
32.「분수령」, (현대문학 1963.11), 44세
33.「자살당한 개」, (신작 33인집, 1963)
34.「애기중의 사랑」, (『피해자』, 1963.12.30)
35.「도장지」, (『피해자』, 1963.12.30)
36.「불」, (『피해자』, 1963.12.30)
37.「네온사인」, (현대문학 1964.7), 45세
38.「나는 그 동물의 이름을 모른다」, (문예춘추 1964.7)
39.「코스모스」, (여원 1964.8)
40.「코스모스부인」, (문예춘추 1964.10)
41.「가을」, (청맥 1964.11)
42.「살모사」, (사상계 1964.11)
*3.「밤에 핀 해바라기」, (장편, 국제신보, 1964)연재
43.「화환」, (현대문학 1965.1), 46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도서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IBRARY

44.「명인」, (신동아 1965.8)
*4.「분수 있는 로우터리」, (장편, 여원 1965)연재
*5.「하오의 무지개」, (장편, 대한일보 1964.11~1965.8)
46.「혼례기」, (현대문학 1966.2), 47세
47.「가을비」, (한국문학 1966.夏)
48.「상흔의 내력」, (신동아 1966.4)
49.「깨어지지 않는 꽃병」, (한국문학 1966.春)
50.「그의 유작」, (문학 1966.6)
51.「임종의 소리」, (현대문학 1966.10)
*6.「금붕어의 향수」, (장편, 여상 1966)연재
52.「단풍」, (현대문학 1967.5), 48세
53.「신분증」, (신동아 1967.7)
*7.「춤추는 선인장」, (장편, 조선일보 1966.9.14~1967.6.23)
*8.「구름을 보는 여인」, (장편, 전남일보 1967.3.1~1967.7.12)
54.「문화주택」, (신동아 1968.5), 49세
55.「비둘기」, (크리스찬 문학 1968)
56.「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 (현대문학 1968.2)
57.「천당 간 사나이」, (현대문학 1968.11)
*9.「산너머 저 산너머」, (장편, 대구매일신문 1968)연재
58.「태자 까지」, (아세아 1969.3), 50세
59.「선녀제비」, (여성동아 1969.3)
60.「죽마지우」, (월간문학 1969.4)
*10「거울」, (장편, 부산일보 1969)
*11「사령장」, (장편, 경제신문 1970)연재
*12「雪線」, (장편, 주부생활 1970.1~1970.12)
61.「청대문집 개」, (현대문학 1970.9)
*13「당원의 미소」, (월간문학 1970.10~1975.12)
62.「지신」, (신동아 1971.2)
63.「커다란 꽃송이가」, (여성동아 1971.11)
*14「전설을 품는 새」, (신여원 1971.12)
64.「정교수의 휴강」, (현대문학 1972.6)
65.「표구된 휴지」, (문학사상 1972.10)
66.「쓸쓸한 이야기」, (신동아 1973.2)
67.「하늘엔 흰구름이」, (현대문학 1973.3)
68.「三界一心」, (문학사상 1973.10)
69.「초배」, (한국문학 1975.2)
70.「배나무 주인」, (문학사상 1975.10)
*15「동명왕」, (한국문학대계 1권 1975)중편
*16「검은 해협」, (조선일보 1976)연재, 장편
71.「고장난 문」, (문학사상 1977.9)
72.「판도라의 후예」, (문학사상 1978.9)
*17「흰까마귀의 수기」, (현대문학 1978.1)연재, 장편.
73.「유모차」, (현대문학 1979.12)
74.「두메의 어벙이」, (문학사상 1980.1)
75.「고국」, (소설문학 1980.7)
76.「별과 코스모스」, (문학사상, 1981.5)
77.「미친 녀석」, (문학사상 1981.5)
(단편소설 77, 중편소설 2, 장편소설 15, 그외 다수의 수필, 평론, 저서 등이 있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자　　료〉

백철 외 5인 편(1967), 「한국현대문학전집6. 김광식, 이범선편」, 신구문화사.
손창섭, 이범선(1988),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유주현, 장용학, 이범선, 전광용(1970), 「한국대표문학전집 9」, 삼중당.
이범선(1958), 제1창작집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이범선(1959), 제2창작집 「오발탄」, 신흥출판사.
이범선(1963), 제3창작집 「피해자」, 일지사.
이범선(1974), 「분수령」, 한국단편문학전집11, 정음사.
이범선(1979), 「오발탄」, 삼중당.
이범선(1982), 「두메의 어벙이」, 홍성사.
이범선(1986), 「삼성판 한국 현대문학전집」, 삼성출판사.
이범선(1989), 「표구된 휴지」, 도서출판 책세상.
이범선(1990), 「학마을 사람들」, 마당문고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논　　문〉

고은희(1992), "이범선 소설 연구 —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 ,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권　유(1985), "이범선 소설론 :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회, 「동악어문논집」.
김분청(1987), "이범선 소설 연구 — 시대상황과 관련한 인간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김상홍(1985), "이범선 소설 연구 :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예호(1985), "분단의식과 전쟁인식 —「오발탄」과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회, 「동악어문논집(20)」.

김인선(1991), "이범선의 단편소설 연구 — 등장인물의 소외양상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수윤(1990), "이범선 단편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안희(1983), "이범선 소설 연구 : 구조내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용남(1991), "서정과 고발의 미학 — 이범선과 그의 작품세계 —", 「인문과학연구논총(8)」,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이해경(1987), "이범선 소설 연구 : 단편소설에 나타난 상징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희훈(1989), "이범선 소설 연구 :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차정자(1983), "이범선 작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저　　서〉

강만길(1984),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김영화(1992), 「분단상황과 문학」, 국학자료원.
김윤식 편(1991),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김준오 외(1992), 「구조주의」, 고려원.
김천혜(1990),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1991), 「1950년대의 문학연구」, 도서출판 예하.
안병직, 신용하, 김대상, 김영호, 송건호 외(1980), 「변혁시대의 한국사」, 동평사.
조동일(1977),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사업사, 1989.
진덕규, 한배호, 김학준, 한승주, 김대환 외(1981),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차봉희(1990), 「비판미학」, 문학과 지성사.
현길언(1990),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 문학과 비평.
루시앙 골드만(1965),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조경숙(1990), 청하.
앨런 스윈지우드(1972), 「문학의 사회학」, 정혜선 역(1984), 한길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장 뽈 싸르트르(1953),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역(1977), 문예출판사.
아지자. 올리비에리 외 공저, 「문학의 상징. 주제 사전」, 장영수 역(1989), 청하.
J. H. 터너(1977), 「사회학 이론의 구조(개정판)」, 김진균 외 역(1989), 한길사.
루이스 A 코저(1956), 「갈등의 사회적 기능」, 박재환 역(1980), 한길사.

〈해설 · 평론 · 기타〉

구창환(1984), "서민적 인정의 휴머니즘 — 이범선의 작품세계", 「한국문학전집 24」, 삼성당.
김병욱(1979), "삶의 인식과 성찰 — 이범선의 「흰 까마귀의 수기」", 「현대문학 271권」, 1979. 7.
김선학(1988), "진부한 소재의 탈 통속화",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김영기(1985), "선량한 인간탐구의 미학", 「현대한국단편문학17」, 금성출판사.
김정신(1989), "소박한 사람들의 소박할 수 없는 상처 — 6. 25와 이범선", 「표구된 휴지」, 도서출판 책세상.
김 준(1985), "전후시대의 상혼과 향수 — 이범선의 〈오발탄〉 —", 「교수아카데미총서8」, 한국소설의 문제작, 도서출판 일념.
백승철(1970), "이범선작품해설", 「한국대표문학전집9」, 삼중당.
신경득(1980), "소설과 사회의 변주 — 이범선론", 「현대문학307권」, 1980. 7.
윤재근(1979), "원형과 사상의 모순율 — 이범선론", 「현대문학270권」, 1979. 6.
이범선(1981), "나의 이력서 — 60년의 색깔, 「현대문학323권」, 1981. 11.
이범선 대담취재, "욕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동서문화」. 1982. 2.
이범선 대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문학사상」, 1974. 2.
천승준(1967), "서민의 미학 — 이범선론", 「현대한국문학전집6」, 신구문화사.
천이두(1967), "시와 인정의 세계 — 갈매기", 「현대한국문학전집6」, 신구문화사.
천이두(1967), "오발탄의 행방 — 오발탄", 「현대한국문학전집6」, 신구문화사.
홍사중(1967), "진실한 구신의 자세 — 피해자", 「현대한국문학전집6」, 신구문화사.
황헌식(1980), "집단과 소극적 개인 — 이범선론", 「현대문학302권」, 1980. 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ummary>

The Study of conflict on the Works of Lee Bum-Sun

Song, Chang-Sun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Hwa

The dbject of this article is to survey the patterns of conflict in his novels, clarify the subjects of his novels and find out what he aims to do with his novels.

Lee Bum-Sun began his literary career with his two short novels, "the Scalper's ticket" and "the Sunday", which appeared in the Hyundae Moonhak with the recommendation of Kim Tong ri. During the 27 years of his literary career, he created over 80 novels and a lot of critical essays.

This article covers all of his short novels and examines the phases of conflict in item. And to testify the literary validities of his works and then to explain the uniqueness of his characters, his life and the surroundings of his time are carefully considered and som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found in his novels are taken into account.

The aspects of conflict can be grouped into three class: the history of sufferings and existence, the conflict of social facts, the conflict of insides.

(1) the history of sufferings and existence

Through his life time, Lee Bum Sun had undergone a lot of political and social disturbances and various kinds of historical experience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4.

The korean War, above them all, left very deep scar in his soul and has closs relation with his works. The extreme situation of the war raises a skepticism on the human nature, and he was interested in the conquest of the conflict, the restoration of the humanity and the pursuit of stability of life. And from there he stepped forward into conclusion of the naive humanism or christian humanism.

(2) the conflict with social realities

He brought into his works the dark and harsh realities of the society, fought for the recovery of the human nature and described the wish to return home with the sorrows of home-lost men and the hospitality of a winter. People of the time generally faced a tragic situation and longed for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the time, that is, for a minimum condition of survival. In his satirical works, they stand up to the inhospitable realities of the society and pursue the truth and the innocence.

The main cause of the conflict was the poverty and the loss of humanity of the era and the solution of the problem was based on the recovery of credit, neighborliness and love.

(3) the conflicts of insides

He wavered between the soul and the body and he pursued the platonic love, and criticized immoral eroticism and described sexul psychology. In the family, though they are poor, love was more valuable than the matrials.

His works can be grouped into three groupes according to the themes: 'the longing for the paradise lost', 'the compunction of conscience', and 'the act of love'.

The first group of works was mostly published around the end of 50's, and they were mainly questions about the human existence of the families who were separated during the war and the citizens who were victims of the period.

The second group, as "the anger of the conscience', consists of his works describing social life of the times, and they criticize the immorality, the absurdities and lack of confidence.

The third group, as 'the act of love', seeks the pure love and criticizes the immorality of the time.

As a whole, in his earlier wworks, he described the concepts of homecoming which represents the sorrows of refrgees and warm humanity. And in his later works, he described the concepts of sorrows of writer's loving in the times of political corruption and turbidity.

He is contrasted against such writers of the same time as Jang Yong Hak, Kim Sung Han, Suh Ki Won because they usually broke the traditional method of work and stressed the experimental sprit and critical consciousness. He was contrary to them in method and in this sence he is in the same line with O Yoo Kown, Lee Ho Chul, Ha Ghun Chan, who used the traditional method of realism in their novels. He played a great role as a bridge between pre- and after-Korean War literature of Kore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